최근 경제동향

www.mofe.go.kr

2005. 12. 8

재 정 경 제 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목 차 >

Ⅰ. 종합 평가 ····· 1

Ⅱ. 부문별 동향 ····· 2

1. 해외 경제 ····· 2

2. 민간 소비 ····· 6

3. 설비 투자 ····· 10

4. 건설 투자 ····· 12

5. 수출입 ····· 14

6. 산업 활동 ····· 16

7. 서비스업 활동 ····· 18

8. 고용 ····· 20

9. 금융 시장 ····· 22

10. 국제 수지 ····· 26

11. 물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 28

12. 부동산 시장 ····· 32

Ⅰ. 종합 평가

[1]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흐름이 강화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 수준 진전된 가운데, 가계 소득 여건도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투자는 전반적으로 아직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임

- 수출(통관, 경상)은 3/4분기 15.4%에 이어 10~11월에도 12.7% (10월 12.5%, 11월 13.0%) 증가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생산활동도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활동의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음

- 하절기중 큰 폭으로 개선되었던 고용 사정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28만명)에 그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임

- 물가는 소비자물가 2%대, 근원물가 1%대의 하향안정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2] 이러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경우 4/4분기 우리 경제는 4%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 속도를 나타낼 전망

- 다만, 아직 투자회복이 미진하고, 가계의 소득 여건도 경제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견조한 소비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는 개선이 불충분한 상황

[3] 정부로서는 국내 경기흐름과 대외여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최근의 회복세가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Ⅱ. 부문별 동향

1. 해외 경제

[1] 세계경제는 고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미국과 중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 및 유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

[2] 미국 경제는 3/4분기 성장률(잠정치)이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연율 3.8%)를 훨씬 넘어서는 연율 4.3%로서 04년 1분기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

- 고유가와 허리케인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 증가, 산업장비 투자 등 기업설비투자(8.8%) 와 국방비 등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 순수출 기여도는 수입이 크게 증가(△0.3%→2.1%)하여 전분기 1.11%p에서 △0.25%p로 마이너스로 전환

(단위: 전기비연율 %, 기여도는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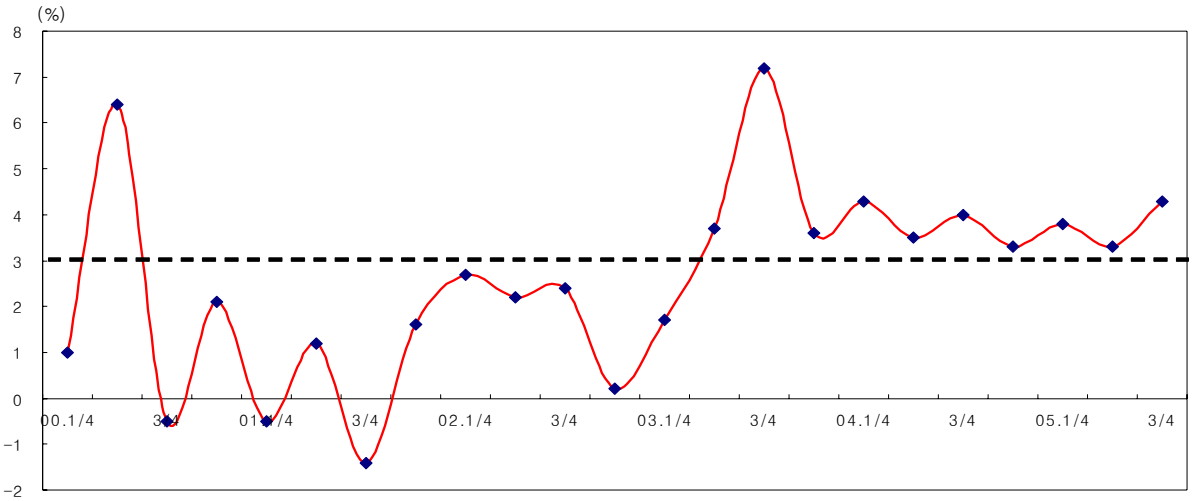
	GDP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지출
				수출	수입	
05년 3/4분기(성장률)	4.3	4.2	5.8	0.8	2.1	3.2
(성장기여도)	(4.3)	(2.97)	(0.96)	(△0.25)		(0.60)

- 한편, 11월 지표들은 고용과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회복세

* 비농업신규고용(천명) : (04)2,194→(05.1/4)546→(2/4)593→(3/4)663→(10)44→(11)215
* 산업생산(전월비, %) : (04)4.2→(05.1/4)0.9→(2/4)0.3→(9)△1.5→(10)0.9
* 소매매출(전월비, %) : (04)7.3→(05.1/4)1.5→(2/4)2.6→(9)0.3→(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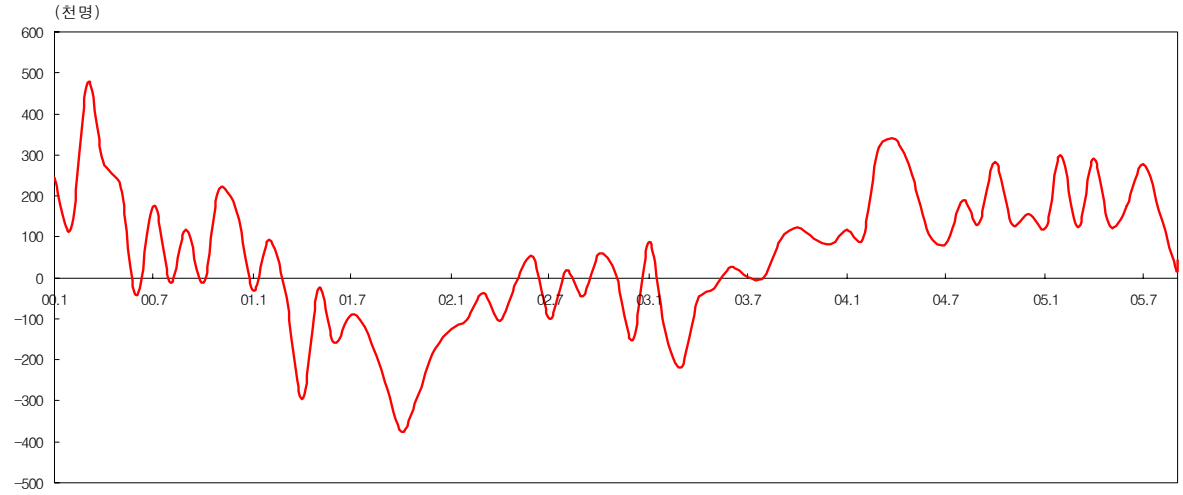
- 11.22일 발표된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200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회의직후 발표되는 정책성명서의 내용 변경 가능성과 과도한 통화 긴축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을 논의

미국 GDP (전기비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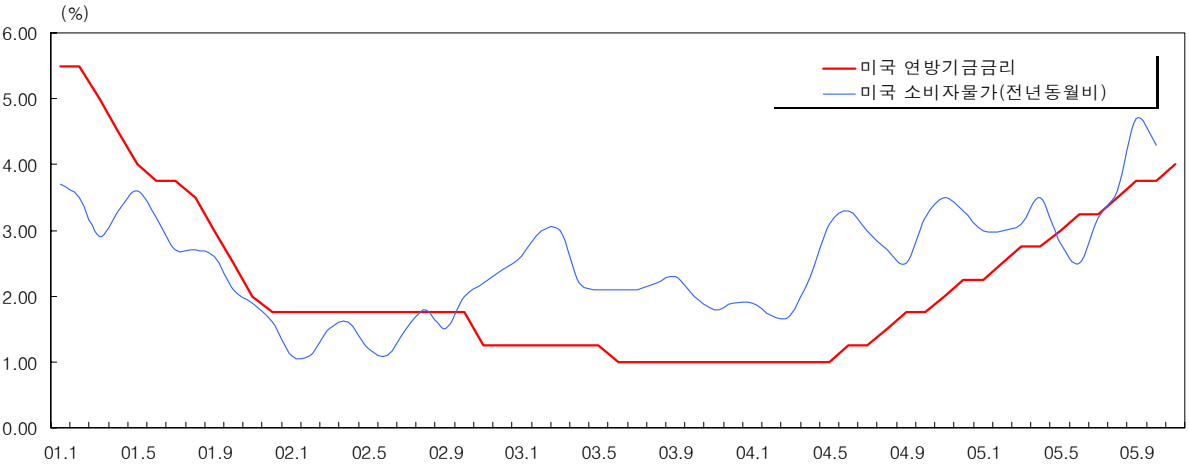
자료 : 미국 상무부

미국 월간 비농업신규 고용증감



자료 : 미국 노동부

미 연방기금금리 및 소비자물가



자료 : 미국 FRB, 노동부

3 중국 경제는 3분기 9.4%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소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이 10월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

* 성장률(전년동기비, %) : (04)9.5→(05.1/4)9.4→(2/4)9.5→(3/4)9.4
* 소매판매(%) : (04)13.3→(05.1/4)13.7→(2/4)12.6→(3/4)12.6→(10)12.8
* 산업생산(%) : (04)16.7→(05.1/4)16.2→(2/4)16.5→(3/4)16.2→(10)16.1
* 고정자산투자(누계, %) : (04)27.6→(05.1/4)25.3→(2/4)27.1→(3/4)28.5→(10)27.6

▪ 10월 수출 증가율은 9월보다 다소 상승한 29.7%를 기록

* 수출(전년동기비, %) : (04)35.4→(05.1/4)34.9→(2/4)30.9→(9)25.9→(10)29.7

▪ 최근 위안화는 달러당 8.08위안을 중심으로 변동 중이며 12월초 개최된 G7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 미 반기 환율보고서(05.11) :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미지정

4 일본의 경기지표들은 9월에 이어 회복 움직임이 다소 둔화

▪ 9월 들어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세계적 소비지출 감소 여파로 각종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10월에도 소매판매와 수출 등이 전월보다 다소 부진

* 광공업생산(전기비, %) : (04)5.5→(05.1/4)1.7→(2/4)△0.4→(3/4)△0.3, (9)0.4→(10)0.6
* 소매판매(전기비, %) : (04)△0.6→(05.1/4)0.0→(2/4)3.2→(3/4)0.8, (9)0.2→(10)△0.3
* 수출(전년동기, %) : (04)12.1→(05.1/4)3.8→(2/4)4.3→(3/4)7.4, (9)8.8→(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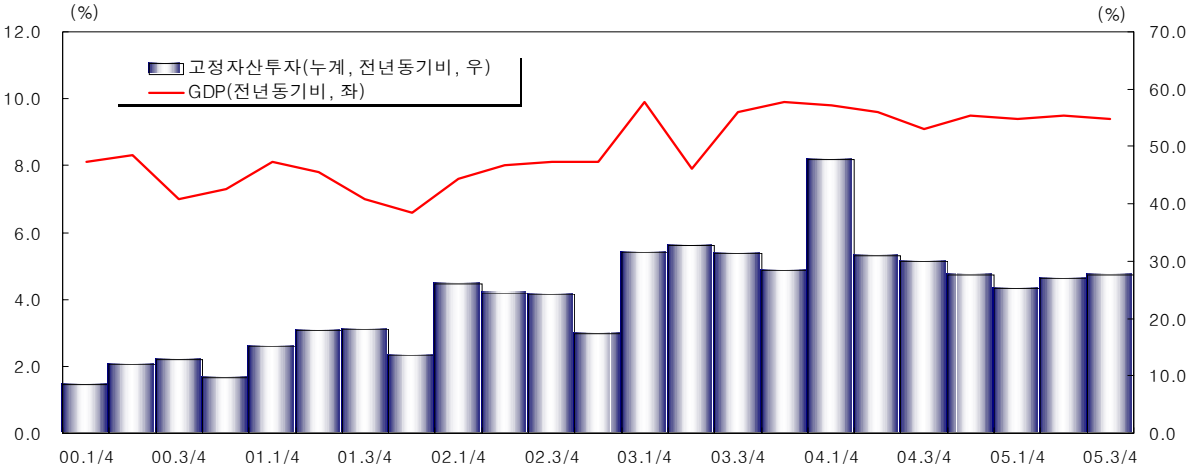
5 유로 경제는 3분기들어 주요 경기 지표들의 회복세가 지속

▪ 산업생산은 6월이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8월 소매매출은 0.9% 증가

* 산업생산(전월비, %) : (04)1.9→(05.1/4)0.0→(2/4)0.4→(7)0.6→(8)2.6
* 소매매출(전월비, %) : (04)0.7→(05.1/4)0.7→(2/4)△0.3→(7)△0.5→(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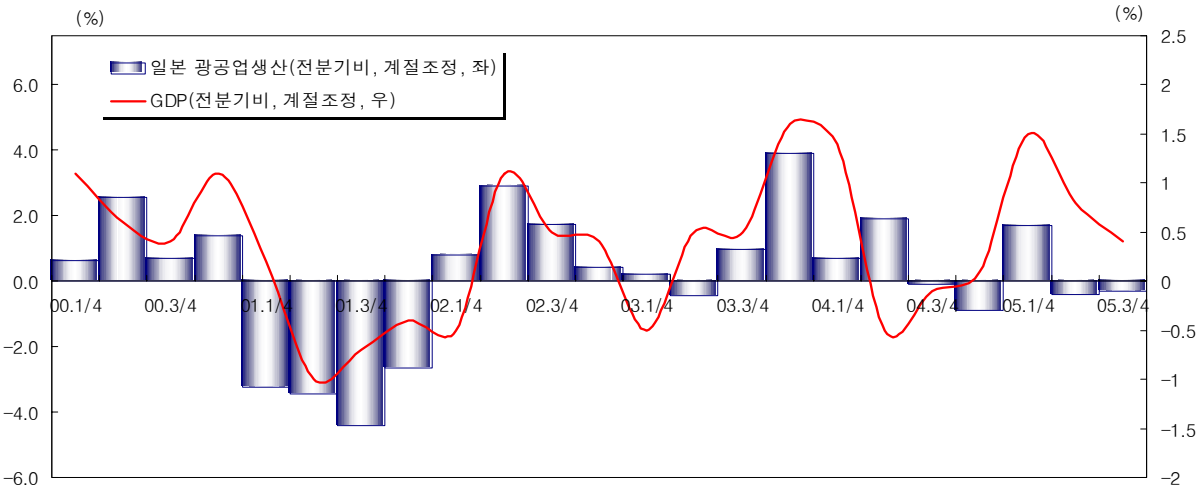
▪ ECB는 12.1 사상 최저수준인 정책금리를 2%에서 2.25%로 25bp 인상

중국 GDP 및 고정자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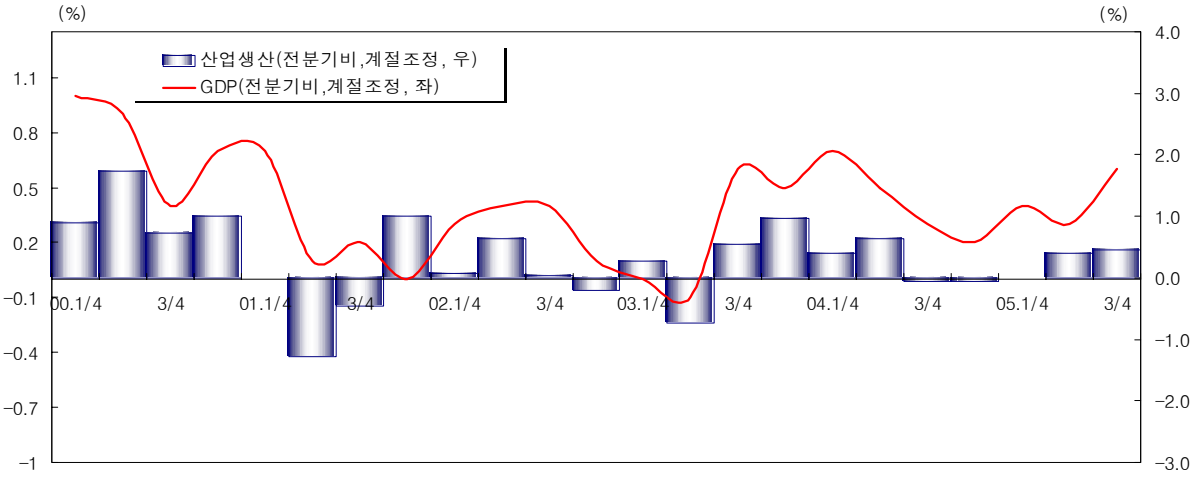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GDP 성장률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유로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



자료 : Eurostat

2. 민간 소비

1 3/4분기 민간소비(국민계정, 잠정치)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여 4%대로 증가세가 확대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04.4/4)0.6→(05.1/4)1.4→(2/4)2.8→(3/4)4.0
(계절조정 전기비, %) : 0.6 0.7 1.4 1.2

2 9월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둔화되었던 소비관련 지표들도 10월들어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

▪ 소비재 판매는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소비도 늘어나면서 3.4% 증가하였음

(전년동기(월) 대비, %)

	2004년			2005년					
	9월	10월	4/4	1/4	2/4	3/4p	8월	9월p	10월p
소비재판매	0.6	△1.3	0.2	1.2	3.2	3.8	6.1	1.1	3.4
- 내 구 재	△4.3	△2.1	2.5	2.5	6.4	6.5	10.1	△0.8	0.9
· 승용차판매	3.3	△0.7	8.4	△2.5	4.8	15.9	24.8	△3.4	5.5
- 준 내 구 재	4.7	5.5	4.0	2.8	7.3	9.5	10.8	9.0	7.6
- 비 내 구 재	1.1	△4.2	△2.9	△0.2	0.0	0.4	2.4	△1.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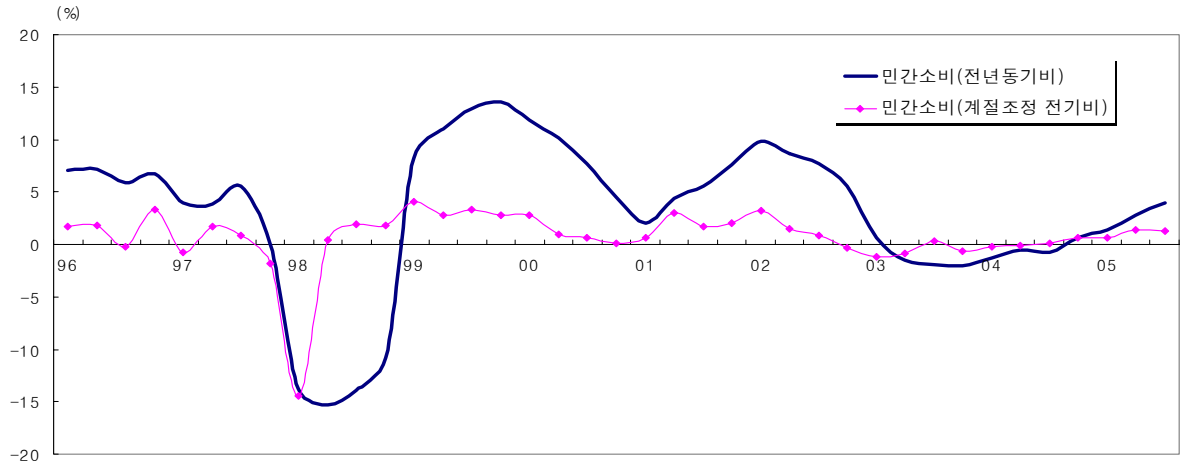
* 내구재(25.4%) : 승용차 · 가전 · 가구 · 통신기기 등, 준내구재(24.0%) : 의류 · 의복 · 신발 등, 비내구재(50.5%) : 의약품 ·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 담배

▪ 도소매업은 자동차판매 · 연료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소매업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도매업 증가세는 9월보다 다소 둔화되었음

(전년동기(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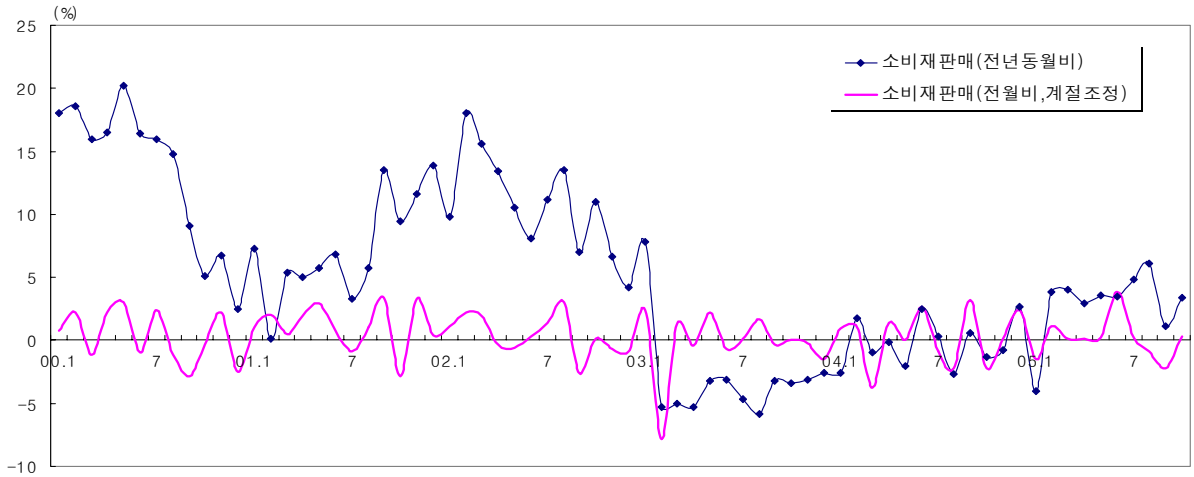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9월	10월	4/4	1/4	2/4	3/4p	8월	9월p	10월p
도소매판매	△0.8	△2.5	△1.4	△1.0	2.6	3.6	5.1	2.8	1.8
- 도 매 업	△0.9	△2.1	△1.1	△2.0	2.8	4.0	4.7	5.1	1.1
- 소 매 업	△1.6	△1.4	△1.6	1.2	2.4	2.6	3.8	2.1	2.3
- 자동차판매·연료	1.7	△5.8	△0.9	△2.6	2.0	4.2	9.2	△4.6	3.5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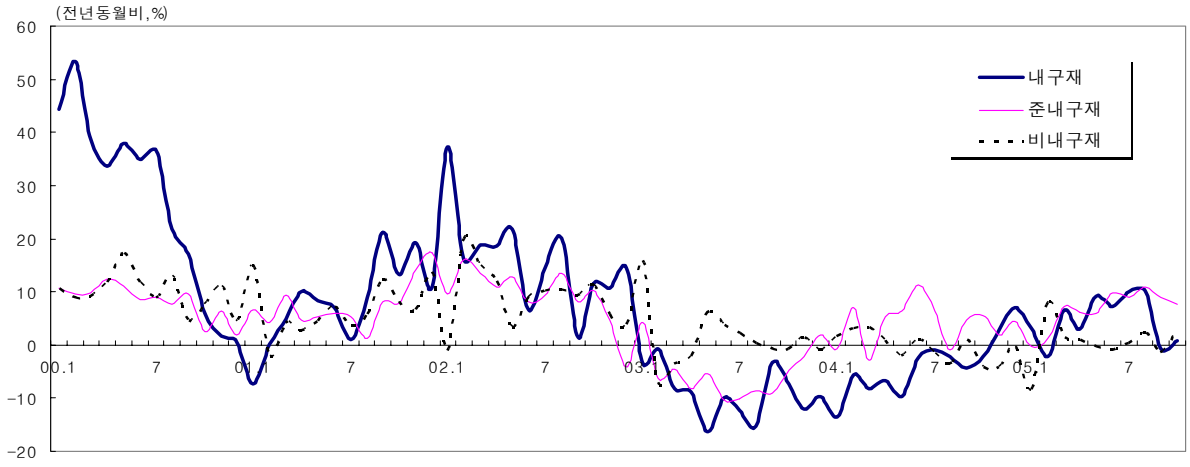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소비재판매액 추이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소비재판매 형태별 추이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3 11월에도 유통업체 매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속보지표 추이와 소비심리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각각 주요 3사 기준)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음

* 백화점 매출(전년동월비, %) : (05.7)4.3→(8)7.0→(9)8.7→(10)5.9→(11)6내외
할인점 매출(전년동월비, %) : 5.3 2.8 3.0 7.4 5수준
<자료 : 산자부 「유통업체 매출동향」, 단 11월은 재경부 모니터링 결과 (경상매출액 기준) >

* 신용카드사용액(전년동월비, %, 여신전문금융협회)
: (05.1/4)13.6 →(2/4)18.0 →(3/4)16.5, (9)17.8 → (10)19.1 → (11)18.3

▪ 국산자동차 내수판매도 신차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

* 국산자동차 내수(만대) : (04.11)9.4, (05.8)9.0→(9)8.2→(10)9.7→(11)11.0
(전년동월비, %) : △4.3 7.6 △9.0 1.9 16.5

▪ 가계의 소비심리도 9월 이후 개선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100기준) : (05.3)102.2→(7)95.2→(8)94.8→(9)96.7→(10)97.5
* 소비자평가지수(통계청, 100기준) : (05.3)89.6→(7)78.9→(8)78.3→(9)81.2→(10)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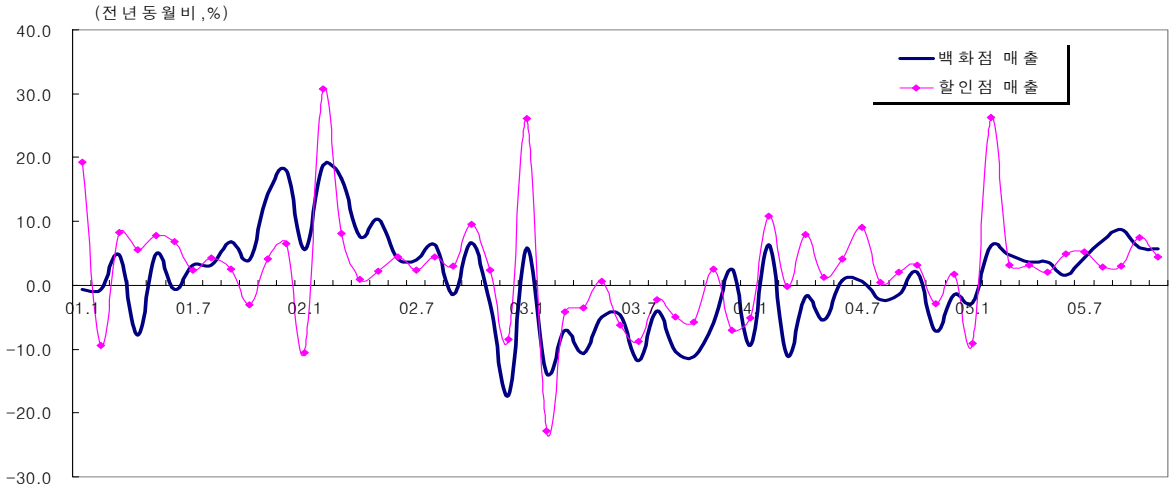
4 앞으로도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고용사정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다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회복 속도를 제약할 소지

* 소득 및 고용관련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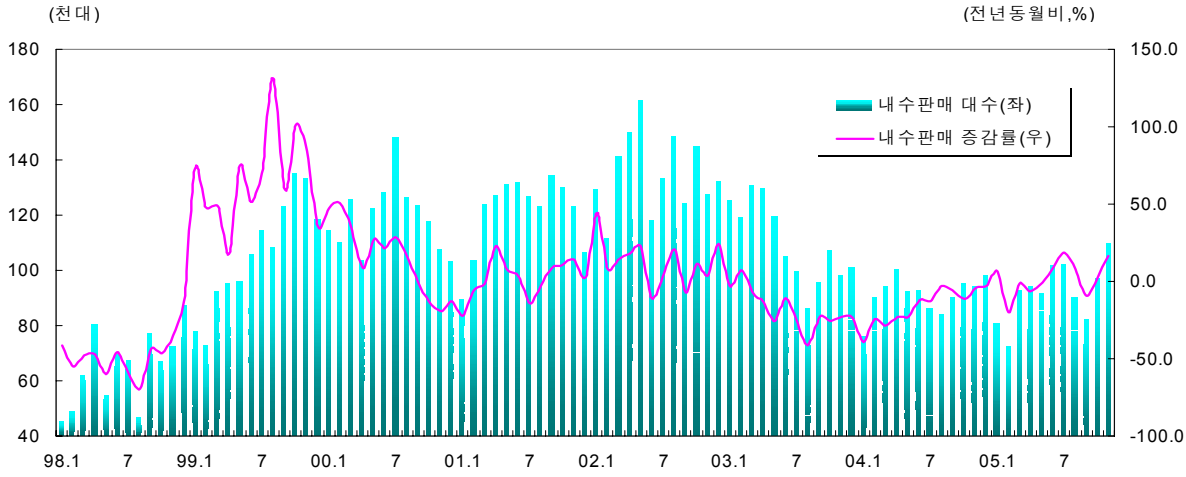
	01	02	03	04	05.1/4	2/4	3/4
·실질 국민총소득(%)	2.8	7.0	1.9	3.8	0.5	0.0	0.1
·실질 가계소득(도시근로자, %)	5.6	3.6	1.7	2.2	1.9	1.6	0.6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41.6	59.7	-3.0	41.8	14.2	38.2	37.9

백화점, 할인점 매출 증감 (경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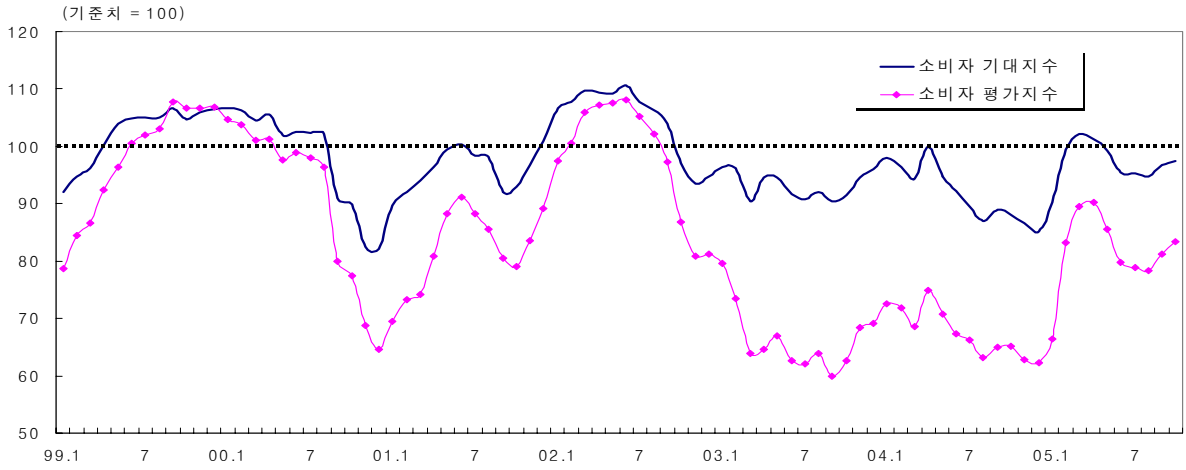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월별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동차 내수판매 추이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월별 자동차산업동향)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월별 소비자전망조사결과)

3. 설비 투자

1 10월 설비투자 추계(경상금액)는 기계류 투자 증가와 운수장비 투자의 감소폭 축소로 소폭이나마 3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

- 기계류 투자는 전기전자기기,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운수장비 투자는 자동차 파업 종료 등에 따라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9월 △11.2% → 10월 △2.3%)

(전년동기대비, %)

	2004년			2005년					
	9월	10월	4/4	1/4	2/4	3/4p	8월	9월p	10월p
설비투자(국민계정)	-	-	2.5	3.1	2.9	4.2	-	-	-
설비투자추계(산업활동)	1.5	△0.5	0.1	4.0	1.4	0.5	△0.7	△1.9	1.7
- 기 계 류	2.8	0.1	0.8	5.5	3.6	0.2	△5.4	0.0	2.7
- 운 수 장 비	△0.8	△0.4	2.6	1.8	△8.5	5.9	27.2	△11.2	△2.3

2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

- 기계류 내수 출하는 통신기기 및 기계장비 등의 출하 감소로 △3.9% 감소
- 제조업의 설비투자 실행 BSI(한은)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전년동월(기)비, %)

	2004년				2005년			
	연간	2/4	3/4	4/4	1/4	2/4	3/4p	10월p
기계류 내수출하	△1.3	△1.5	0.4	△0.9	△0.4	△1.4	2.2	△3.9
설비투자실행 BSI	94	93	95	92	97	96	97	97(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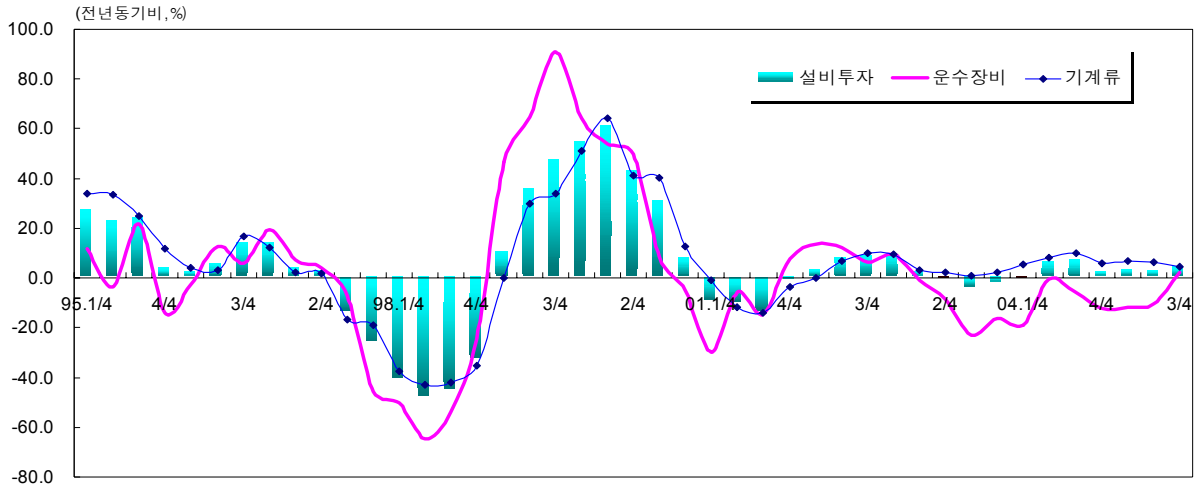
* BSI(기준치 100) = 「호조」 응답업체 구성비(%) － 「부진」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선행지표중 기계류 수입은 호전되는 모습이나, 국내 기계수주는 0.9% 증가에 그쳐 9월 이후 부진을 지속

* 국내 기계수주(%) : (05.7)25.4→ (8)18.4→ (9)△0.3→ (10)0.9
* 기계류 수입(%) : (05.7)24.7→ (8)10.0→ (9)13.5→ (10)△0.7→ (11.1~2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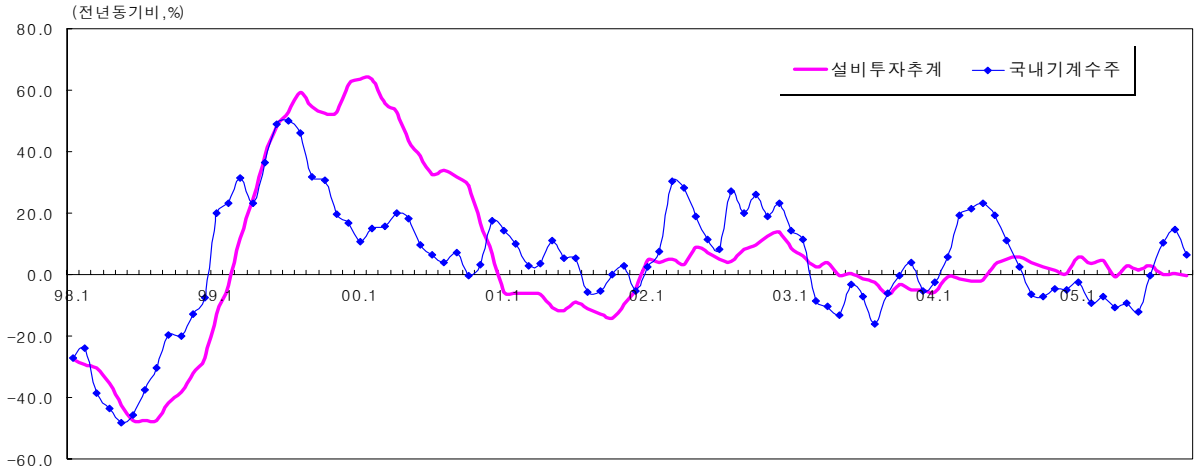
3 앞으로 설비투자는 향후 내수 회복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기계수주 등 관련 지표의 추이를 감안할 때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설비투자 형태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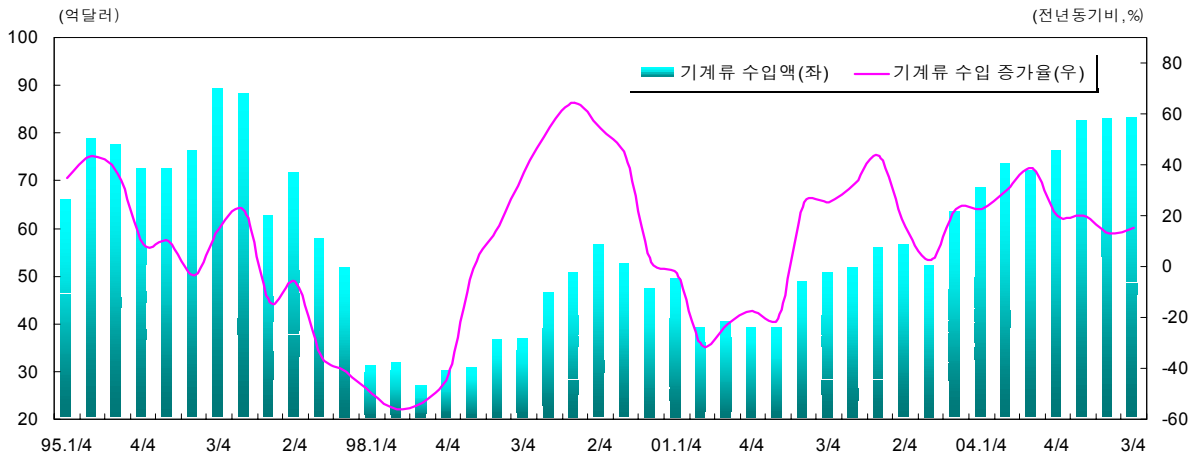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추계 추이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기계류 수입액 추이



자료 : 무역협회

4. 건설 투자

□ 10월 건설기성(경상금액)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3.4% 증가에 그침

▪ 건축공사는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1.0% 증가

(전년동월(기)비, %)

	2004년			2005년					
	9월	10월	4/4	1/4	2/4	3/4[P]	8월	9월[P]	10월[P]
건설투자(국민계정)	-	-	△3.4	△2.9	1.7	0.4	-	-	-
건설기성(산업활동)	19.7	9.0	4.4	2.8	10.3	4.4	5.0	3.3	3.4
- 건 축	18.9	12.5	8.3	1.1	10.5	5.4	4.8	7.2	4.6
- 토 목	21.3	2.7	△2.0	6.3	10.3	2.4	5.4	△3.6	1.0

□ 10월 건설경기 관련 지표들도 대체로 부진한 모습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기저효과(Base effect)의 영향도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34.8% 감소하여 8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

▪ 주택건설실적은 △46.9% 감소하는 등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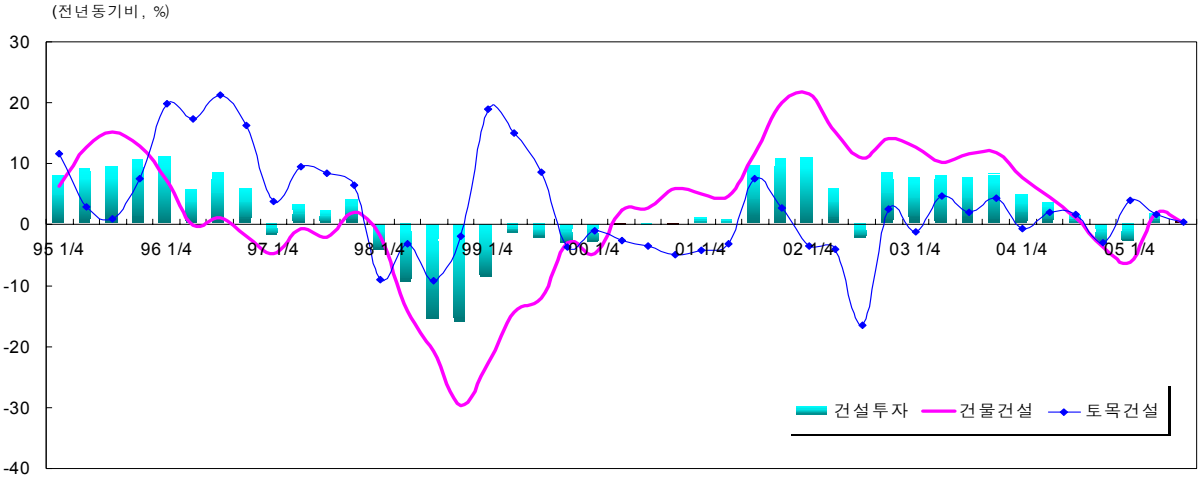
▪ 건축허가면적은 0.5% 증가하였으나, 주거용이 △15.0% 감소하였고 비주거용(15.8%)도 건설 경기와는 관계가 크지 않은 교육·사회용(78.7%) 중심으로 증가

(전년동월(기)비, %)

	04.2/4	3/4	4/4	05.1/4	2/4	3/4	10
· 건설수주	△23.8	△20.8	28.8	24.8	40.5	16.7	△34.8
· 주택건설실적	△57.6	6.5	23.4	23.0	25.8	△26.6	△46.9
· 건축허가면적	△34.0	△15.0	14.7	0.6	△0.6	△ 6.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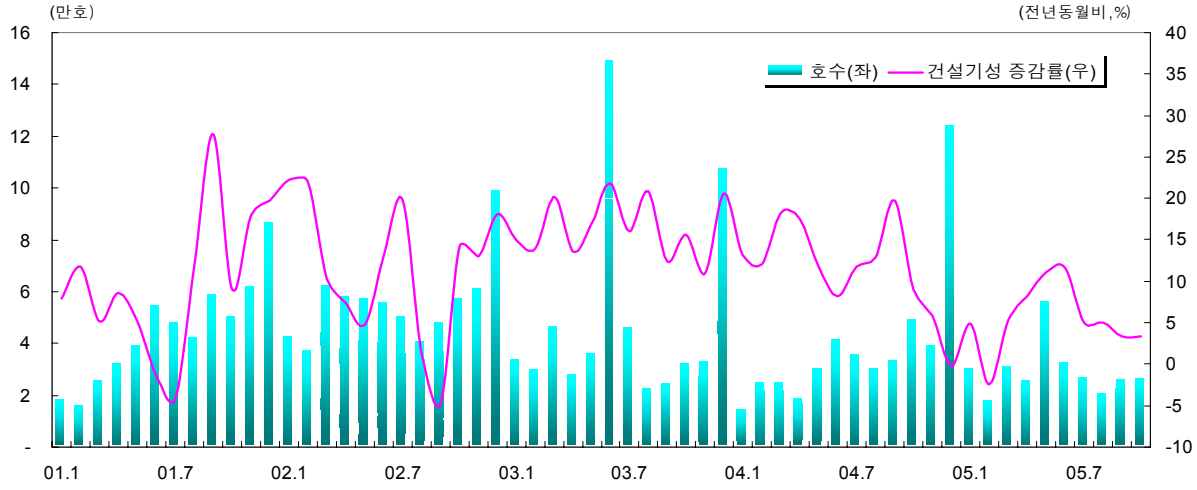
□ 앞으로 건설 경기는 각종 지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선행지표들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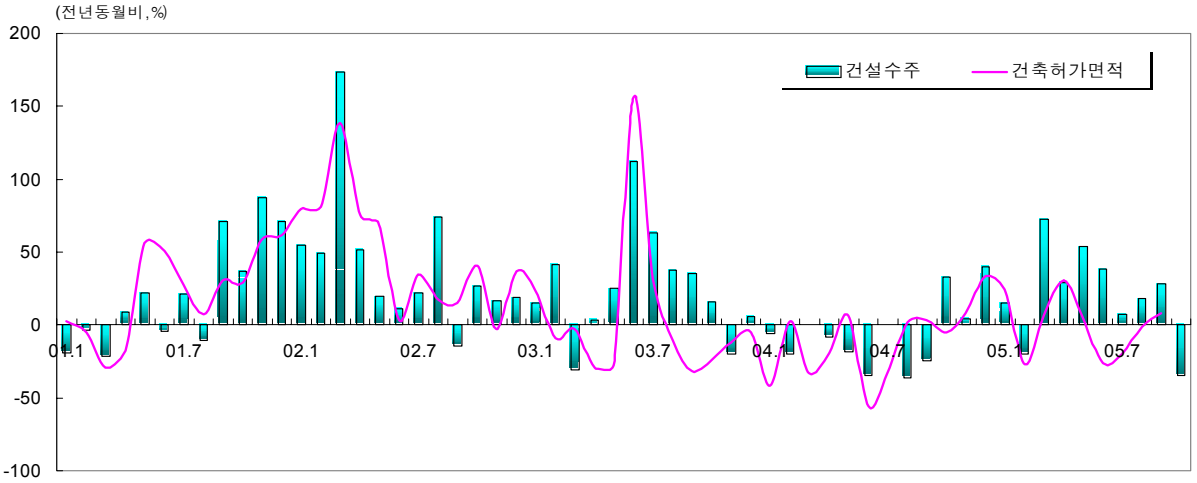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건설기성과 주택건설실적



자료 : 통계청(건설기성), 건설교통부(주택건설실적)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 통계청(건설수주), 건설교통부(건축허가면적)

5. 수출입

1 11월 수출은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여건과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230.8억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인 260.7억불을 기록하였고 증가율로도 두 자리수인 13.0%의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달보다 다소 낮은 10.9억불이나 조업일수가 1.5일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견조한 수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수출(억불)	237.2	232.4	233.5	245.3	255.0	260.7	2,592.2
(전년동기, %)	(9.5)	(10.6)	(17.9)	(17.8)	(12.5)	(13.0)	(12.4)
·일평균 수출액(억불)	10.3	9.9	9.7	10.9	11.3	10.9	10.3

- 품목별(추정)로는 석유제품(62.4%), 자동차(6.7%), 일반기계(38.0%) 반도체(6.7%) 등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컴퓨터(△8.4%), 가전(△8.2%) 등은 감소세

2 11월 수입도 17.9% 증가한 239.4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수입 증가율이 다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일평균 수입액도 3개월 연속 10억불대를 지속

- 품목별로는 원자재(22.2%) 증가율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소비재(8.2%)와 자본재(5.5%)도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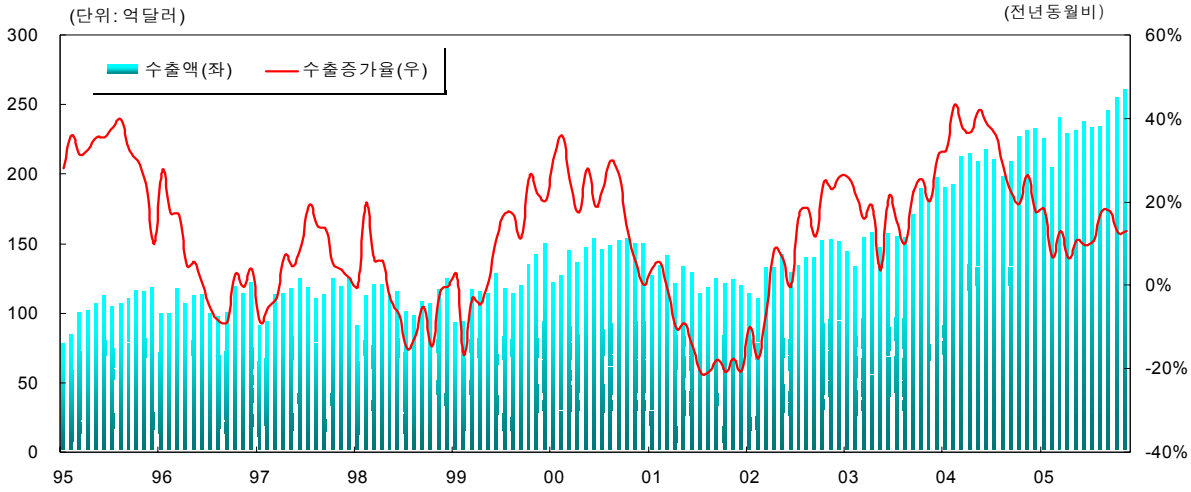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수입(억불)	212.6	214.7	219.4	226.5	227.1	239.4	2,368.7
(전년동기, %)	(14.6)	(16.7)	(21.0)	(24.5)	(11.3)	(17.9)	(16.4)
·일평균 수입액(억불)	9.2	9.1	9.1	10.1	10.1	10.0	9.4

3 11월 무역수지는 전월(+27.9억불)보다 흑자폭이 감소한 21.3억불을 기록

* 무역수지(억불) : (05.6)24.6→(7)17.7→(8)14.1→(9)18.8→(10)27.9→(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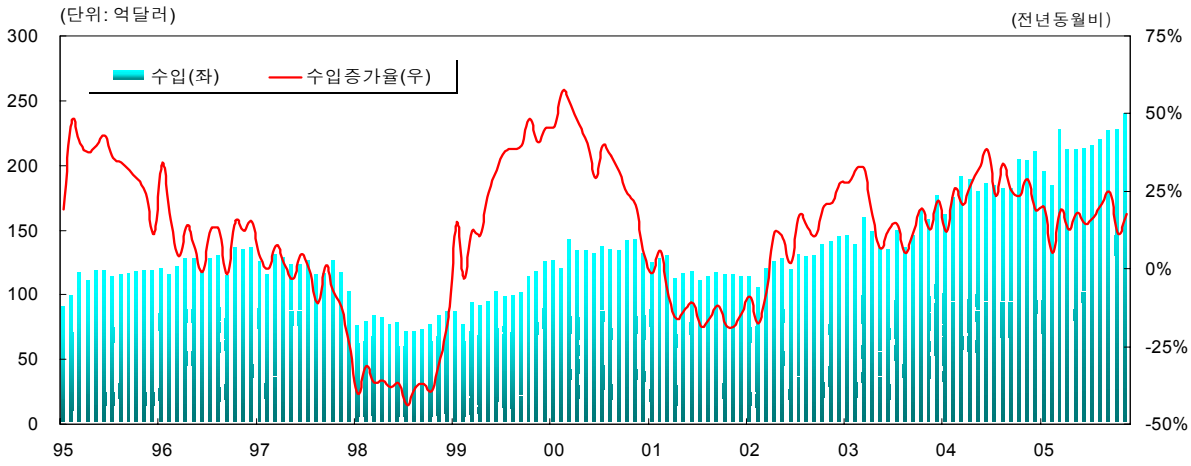
4 12월에는 작년과 조업일수(24.5일)가 동일하고 전년도 기저효과(04.12, 232.0억불)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수출 호조세는 유지되겠으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

수출 추이 (통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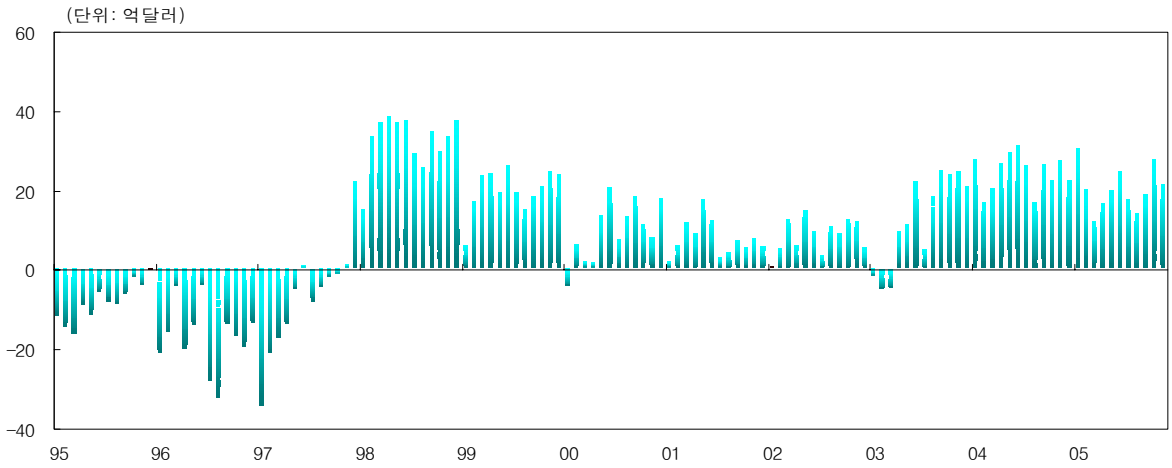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수출입동향)

수입 추이 (통관 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수출입동향)

무역수지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수출입동향)

6. 산업 활동

1 10월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1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업계의 조업정상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다만, 반도체·영상음향통신을 제외시 산업생산은 0.3% 증가에 그쳐 경기회복세가 아직 전 업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산업생산(%, 전년동기) : (05.2/4)4.0→(3/4)6.9, (8)6.4→ (9)7.3→ (10)8.0
- 반도체·음향통신 제외시 : 2.0 1.3 0.7 0.2 0.3

* 금년 10월 조업일수가 전년동월 대비 1일 감소한 것은 개천절(10.3일)이 지난해에 일요일이었으나 금년에는 월요일인 데 기인함

2 업종별로, 반도체(전년동월비, 36.7%), 영상음향통신(12.0%), 자동차(6.1%) 등이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한 반면, 컴퓨터 등 사무회계용 기기(△11.1%), 섬유제품(△12.4%) 등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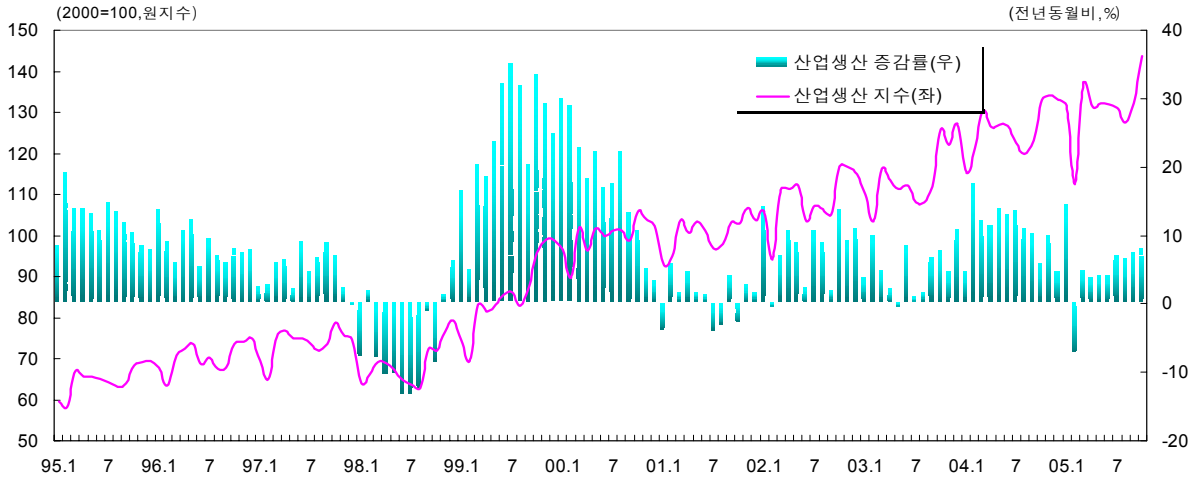
3 제조업 가동률은 전월보다 0.3%p 증가한 79.3%를 기록하였고, 재고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전년동월(기)비, %)

	2004년			2005년				
	10월	4/4	연간	2/4	3/4P	8월	9월P	10월P
산업생산지수	5.8	6.7	10.4	4.0	6.9	6.4	7.3	8.0
·반 도 체	27.4	22.5	41.0	13.0	27.2	26.6	31.9	36.7
·영상음향통신	20.3	11.1	19.6	4.0	14.1	14.9	16.4	12.0
·자 동 차	0.8	12.6	13.3	15.4	2.9	-0.2	-11.1	6.1
전월(기)비(계절조정)	0.6	2.1	-	0.5	3.2	-0.7	2.4	1.0
평균가동률(%)	79.7	80.4	80.3	79.0	79.4	78.6	79.0	79.3
재고증가율	5.9	9.4	9.4	7.9	6.8	5.4	6.8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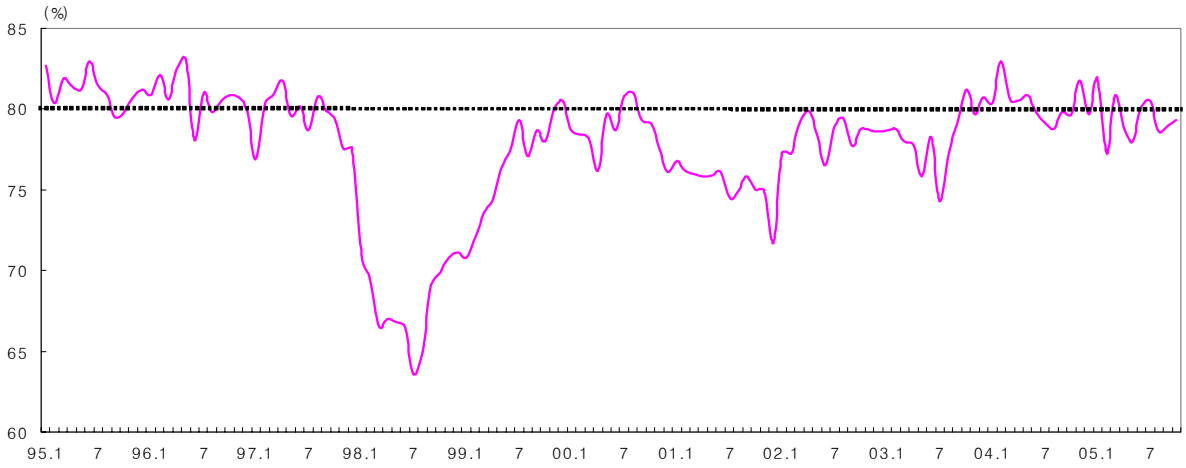
4 11월에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 등으로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산업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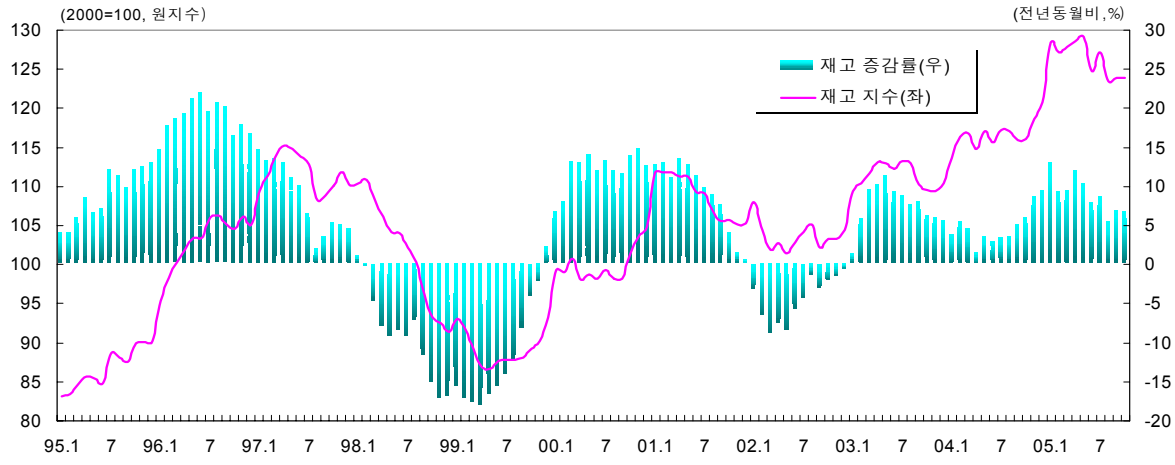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재고 추이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7. 서비스업 활동

1 서비스업 활동은 추세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

▪ 10월중 서비스업활동은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0.2%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 활동(%) : (05.1/4)0.7→(2/4)2.4→ (3/4)5.3, (8)5.9→ (9)5.5→ (10)4.7
전월(기)비(계절조정) : 1.1 1.0 2.1 1.2 △0.5 0.2

2 업종별로는, 11개 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에서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특히,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숙박·음식점업은 9월에 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데 이어 10월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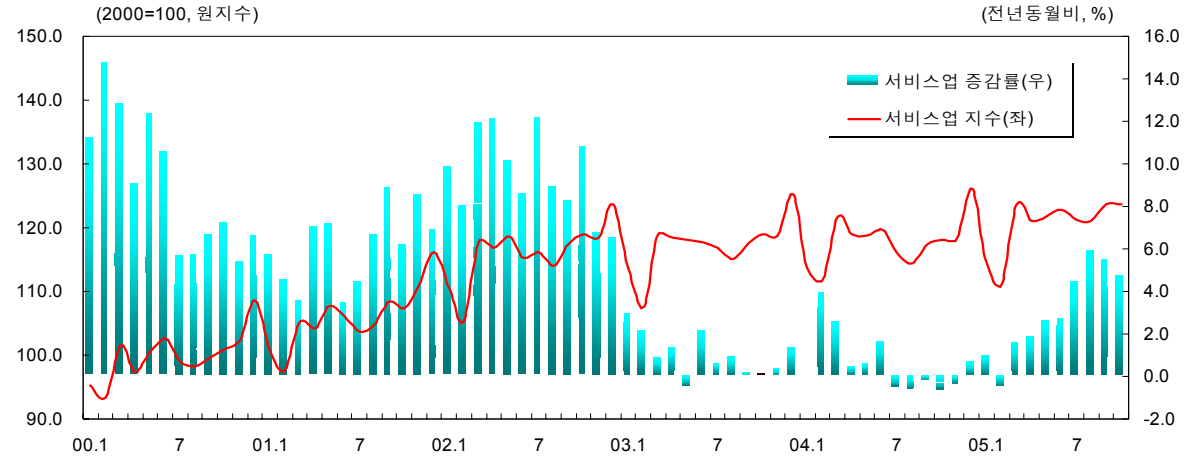
* 업종별 기여도를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고르게 기여한 가운데, 금융·보험업(2.25%p)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

(전년동기(월) 대비, %, %p)

	비중	2004년		2005년						10월
		10월	연간	1/4	2/4	3/4p	8월	9월p	10월p	기여도
서비스업활동	100.0	△0.8	0.6	0.7	2.4	5.3	5.9	5.5	4.7	4.7
도소매업	27.6	△2.6	△1.2	△1.4	2.0	2.8	4.2	2.2	1.2	0.33
숙박·음식점업	7.7	1.3	△0.7	△1.3	△0.6	△0.1	△0.1	0.5	3.4	0.25
운수업	8.8	2.0	6.2	3.1	3.4	4.7	4.5	5.0	5.2	0.48
통신업	5.8	4.3	5.8	4.6	4.2	2.7	4.3	2.1	4.1	0.29
금융·보험업	17.6	△0.8	0.1	0.4	1.8	13.6	13.5	15.3	12.9	2.25
부동산·임대업	5.4	△8.0	△6.3	6.6	8.0	10.0	11.0	10.0	6.6	0.32
사업서비스업	8.5	0.5	1.9	1.8	1.5	2.7	3.2	4.5	3.2	0.27
교육서비스업	8.6	1.0	1.6	△0.4	0.0	3.2	4.0	2.0	△1.2	△0.10
보건·사회복지	4.0	2.4	5.0	1.6	7.0	8.1	7.5	9.7	7.8	0.29
오락·문화·운동	3.5	△2.9	△3.3	△1.1	3.5	4.6	5.1	4.0	4.0	0.15
기타 공공·개인	2.6	△3.6	△1.1	0.3	2.0	2.4	4.6	1.9	2.4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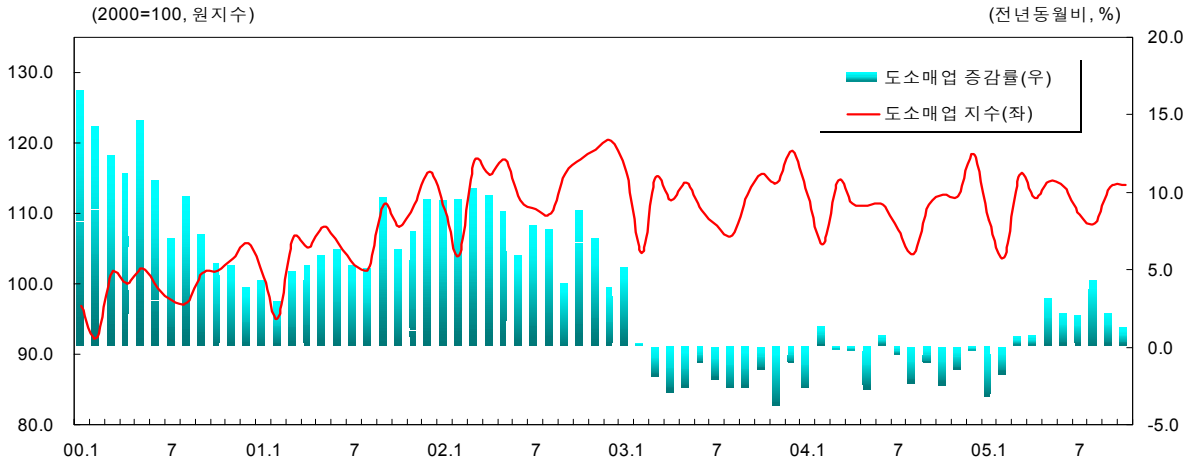
3 소비관련 속보지표의 호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행·레저·숙박업종의 호전, 지난해의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서비스업 활동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서비스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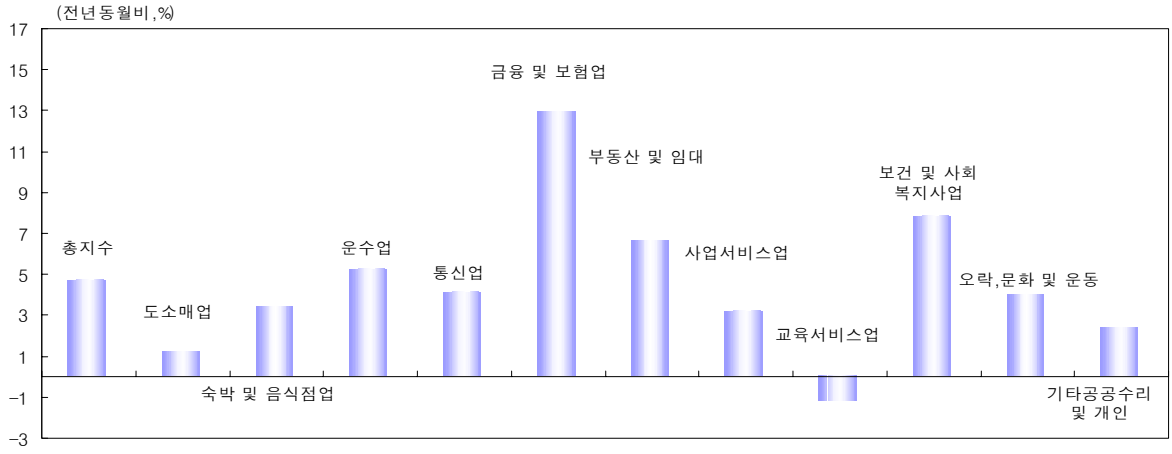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서비스업활동동향)

도소매업 추이



자료 : 통계청(서비스업활동동향)

05. 10월 업종별 서비스업 추이



자료 : 통계청(서비스업활동동향)

8. 고 용

1 10월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4만명 증가하여 지난달(23.9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 (05.1~10월중 29.9만명 증가)

- 제조업은 연초 이래의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8.1만)
- 건설업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반락으로 9월에 이어 취업자가 소폭 감소(△1.1만)
- 농림어업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5~8월중 이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9월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장기추세로 복귀(△2.8만)
- 서비스업은 전반적인 내수회복세를 반영하여 40만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며 주요 고용창출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40.4만)
  - 도소매업(△5.6만명)을 제외한 서비스업 전반에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내수경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 취업자가 8월에 이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2.8만)되었음

2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면서(34.5만명)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3.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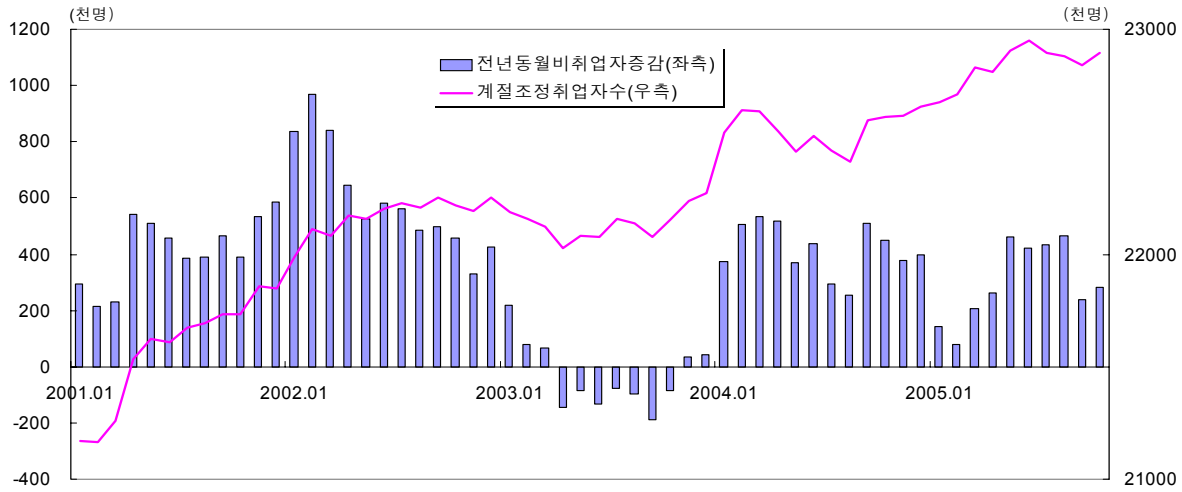
* 인구주택 총조사요원으로 선발된 인원이 실제 조사기간(11.1~15일)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자로 산정되어 실업률을 0.1%p 가량 높였음

(전년동기대비, 만명)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5.10
·취업자증감	14.2	8.0	20.5	26.2	46.0	42.4	43.4	46.5	23.9	28.4
- 농림어업	△8.4	△9.4	△7.4	0.4	8.0	6.7	8.1	1.8	△0.2	△2.8
- 제조업	△0.2	△1.8	△3.5	△5.2	△3.8	△6.5	△7.9	△5.9	△9.6	△8.1
- 건설업	△5.4	△9.6	△5.8	△1.7	5.0	6.6	8.4	6.9	△1.4	△1.1
- 서비스업	28.4	29.0	37.1	32.3	36.4	35.2	34.5	43.5	35.0	40.4
·실업률(%)	4.2	4.3	4.1	3.8	3.5	3.6	3.7	3.6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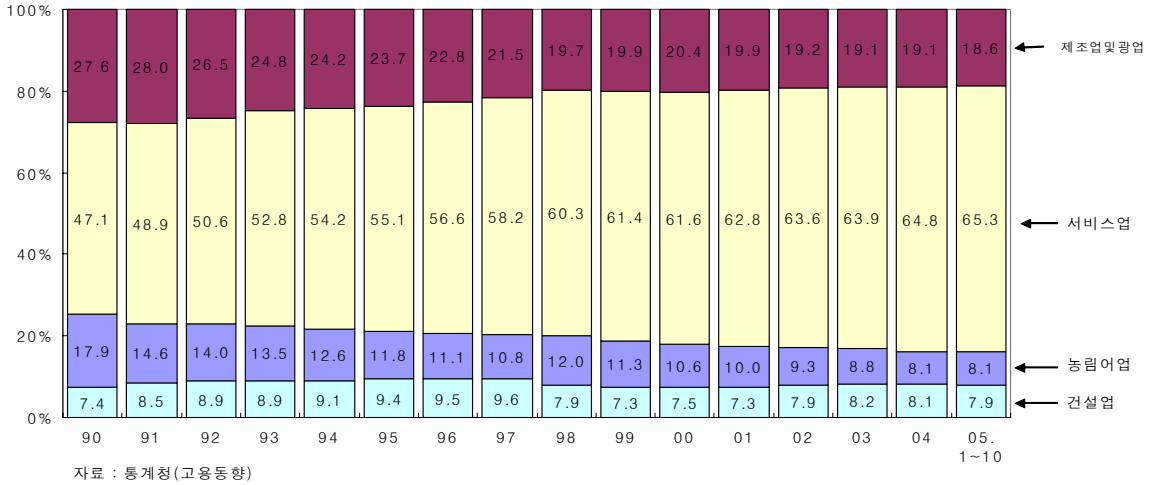
3 9월 이후 취업자 증가규모는 5~8월중 큰폭 증가에 비해서는 다소 하향 조정되었으나 내수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11, 12월에도 최근의 고용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으로는 3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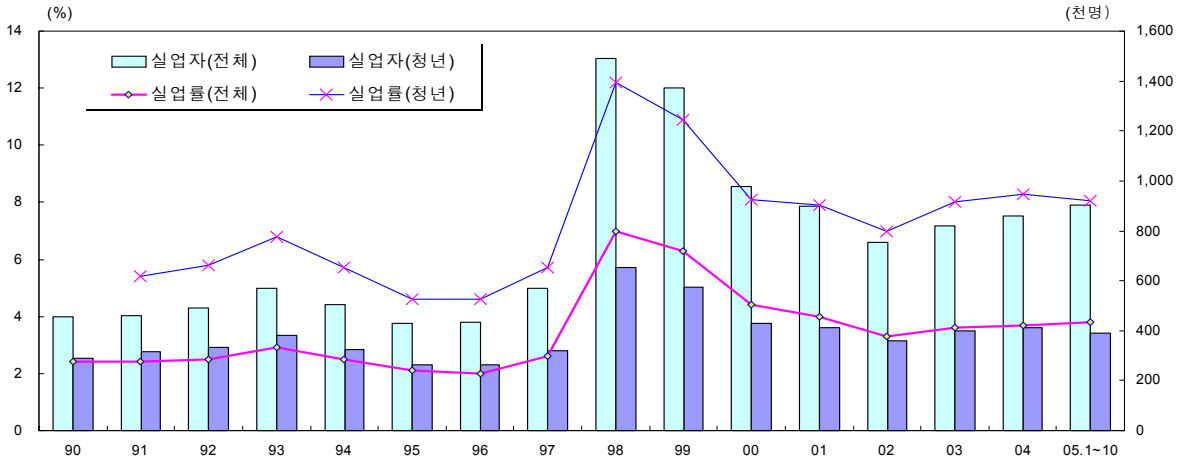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고용동향)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고용동향)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고용동향)

9. 금융 시장

1 주식 시장

▪ 11월중 거래소는 전달대비 12.0% 상승하면서 11.30일 사상 최고치인 1,297.4p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한달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연속 상승하여 전달대비 21.3% 상승한 712.4p를 기록

- IT 기업들의 실적호전 기대에 따른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 주식형 펀드 등에 자금의 지속적 유입 등에 기인

▪ 11월중 외국인은 410억원을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5,451억원을 순매수, 개인은 18,265억원 순매도

(p, 조원, %)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04말	'05.11말	(연말대비 증감)	'04말	'05.11말	(연말대비 증감)
· 주가지수	895.9	1,297.4	+401.5(44.8%)	380.3	712.4	+332.1(87.3%)
· 시가총액	412.5	608.7	+196.2(47.6%)	31.6	69.9	+38.3(121.2%)
· 일평균거래액	2.2	4.2	+2.0(90.9%)	0.6	2.5	+1.9(316.7%)

2 외환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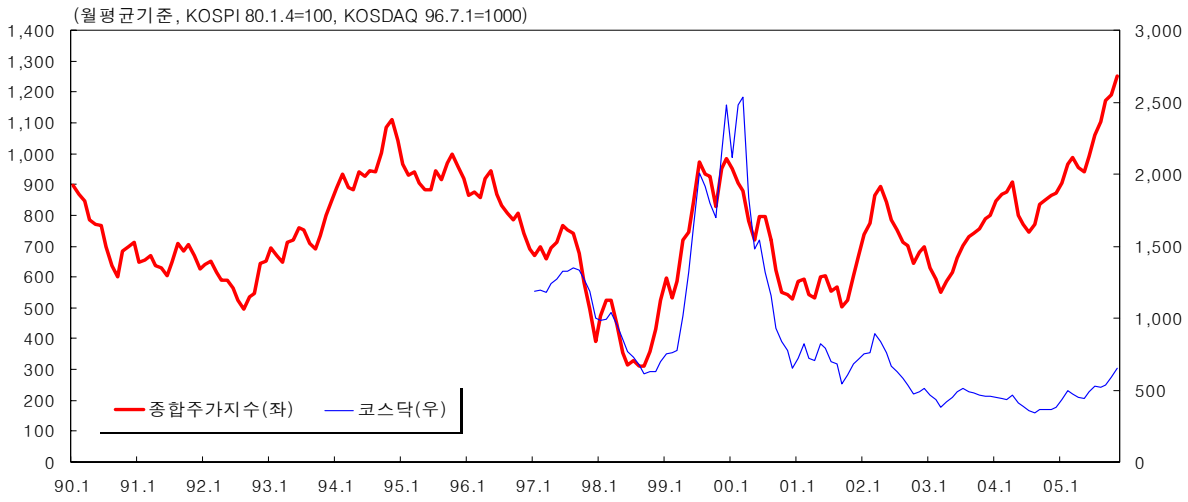
▪ 11월중 원/달러 환율은 월 초반 소폭 상승한 후 월 중반 이후에는 하락세로 반전

▪ 월초 미연준 금리인상과 하이닉스 주식 해외매각대금 처리 종료에 따른 달러공급 완화 등으로 11.7일 1,049원대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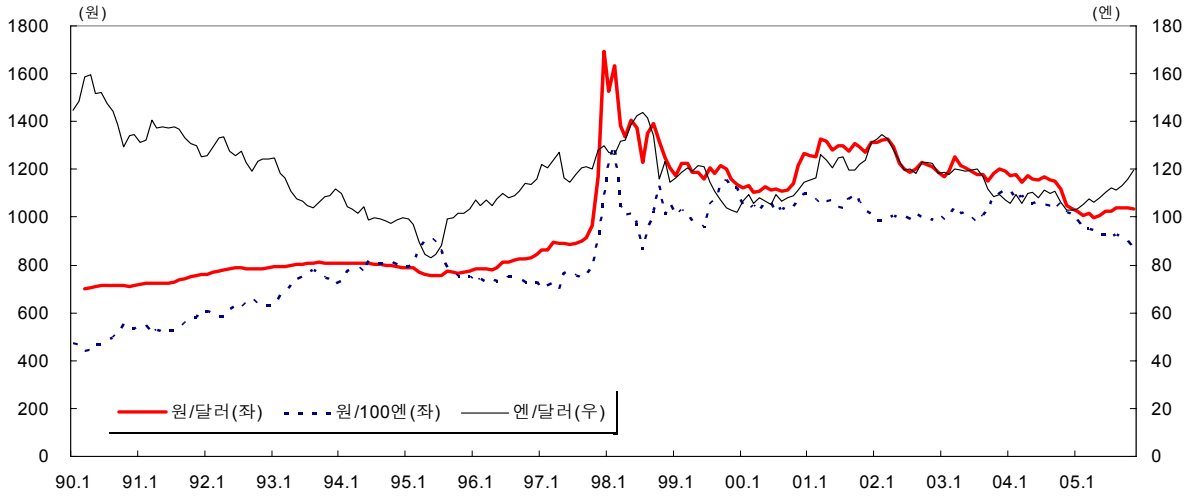
▪ 월중반 이후 수출업체 달러 매도 증가 등으로 수급상 공급이 우위를 보임에 따라 1,033원대로 하락하며 마감

	'04년말	'05.6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원/달러 환율	1,035.1	1,025.4	1,041.1	1,040.2	1,033.5
엔/달러 환율	102.5	110.2	113.0	115.6	1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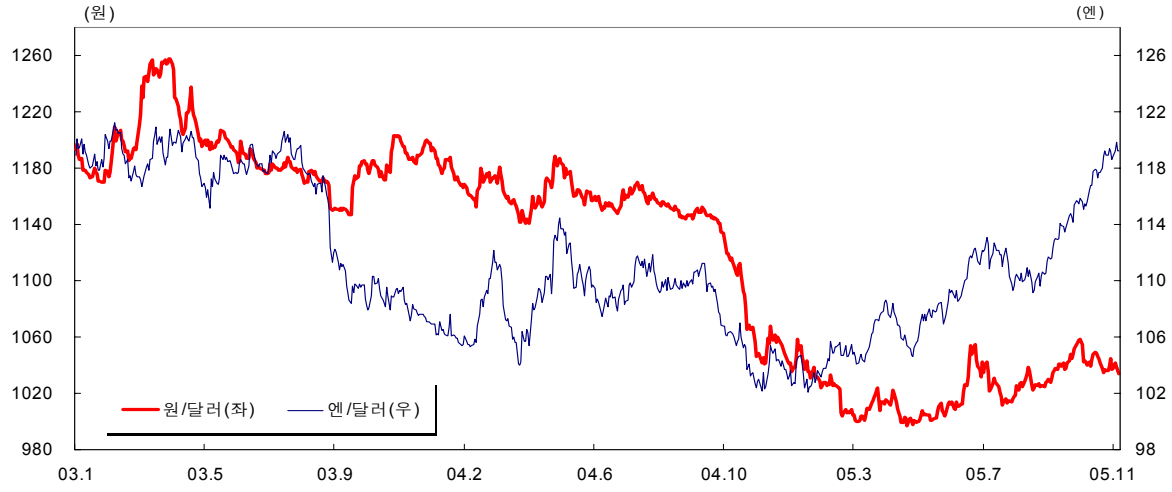
주가 추이



환율 추이 (월말기준)



최근 환율 추이



3 채권 시장

▪ 국고채 등 채권금리는 경기 회복세 등을 반영하여 상승세를 지속

▪ CD(3개월) 유통수익률은 10.11 콜금리 인상후 대체로 안정세 유지

	05.1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0월대비
콜금리(1일)	3.24	3.26	3.25	3.25	3.26	3.27	3.24	3.23	3.25	3.50	3.51	+0.01
CD(91일물)	3.57	3.55	3.54	3.48	3.52	3.54	3.49	3.51	3.93	3.95	3.95	+0.00
국고채(3년)	4.06	4.04	3.91	3.76	3.67	4.02	4.23	4.16	4.60	4.95	5.10	+0.15
회사채(3년)	4.53	4.49	4.34	4.18	4.08	4.41	4.63	4.59	5.00	5.34	5.51	+0.17

4 통화량 및 자금 흐름

▪ 10월 M3 증가율은 민간신용의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서 9월과 비슷한 6% 중반으로 추정되며

- M1은 정기예금 및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이동 등에 따라 9% 중반으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

(단위 : 전년동기대비, 평잔, %)

	04.12	05.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M1	7.5	5.6	7.7	8.7	8.6	8.8	9.9	12.8	13.9	12.0	9중반
· M2	4.9	5.3	5.3	5.3	5.5	5.5	6.0	7.0	7.1	5.9	6내외
· M3	6.3	6.1	5.8	5.4	5.4	5.6	6.0	6.5	6.5	6.4p	6중반

▪ 10월 은행 수신은 전월 대폭 늘었던 MMDA가 특판예금의 만기도래 및 부가세 납부 등으로 감소한 반면 정기예금은 고금리 특판, 수신금리 상향 조정 등으로 증가폭 확대
(9월중 +10.1조원 → 10월중 -3.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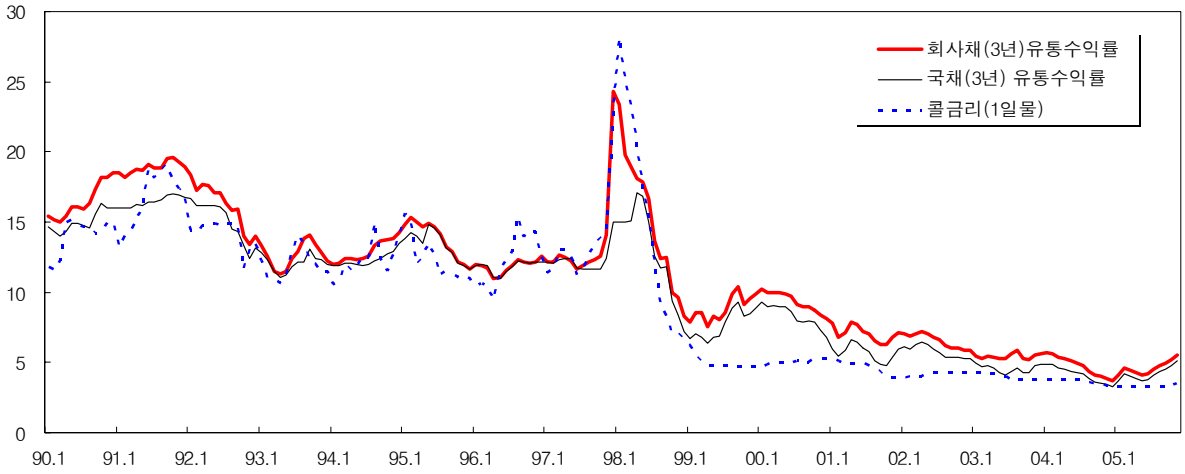
-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의 자금이탈 안정, 채권형펀드의 감소폭 축소로 소폭 증가

(단위 : 월평균증감, 조원)

	1/4	2/4	3/4	4/4	05.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은행권수신	0.9	1.5	△0.6	△2.0	△7.4	11.7	△4.3	9.9	1.9	11.9	△3.1	1.4	10.1	-3.2
자산운용사	5.7	△0.3	4.5	5.2	0.7	4.6	△0.1	3.3	1.3	0.0	8.3	0.9	-13.0	1.6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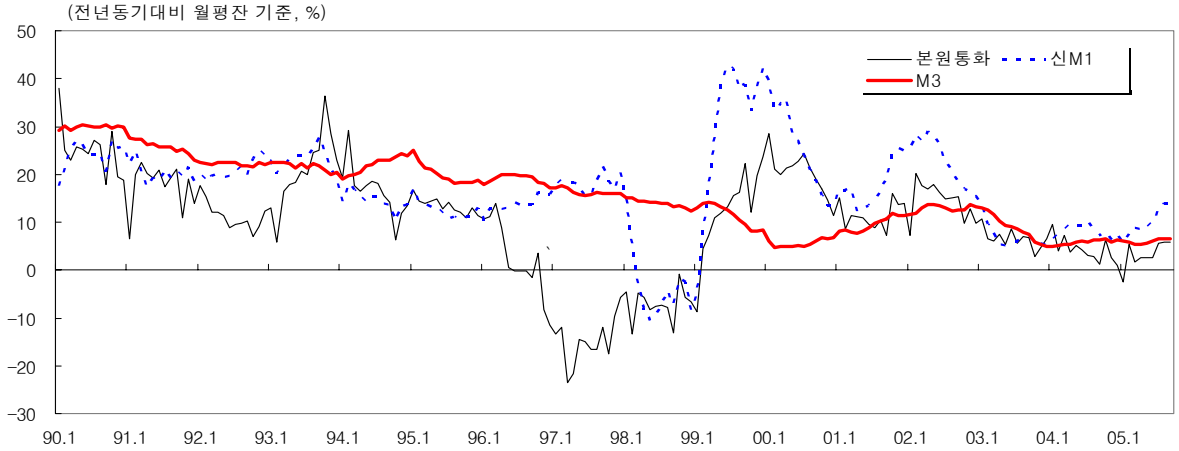
(월평균 기준, 연%)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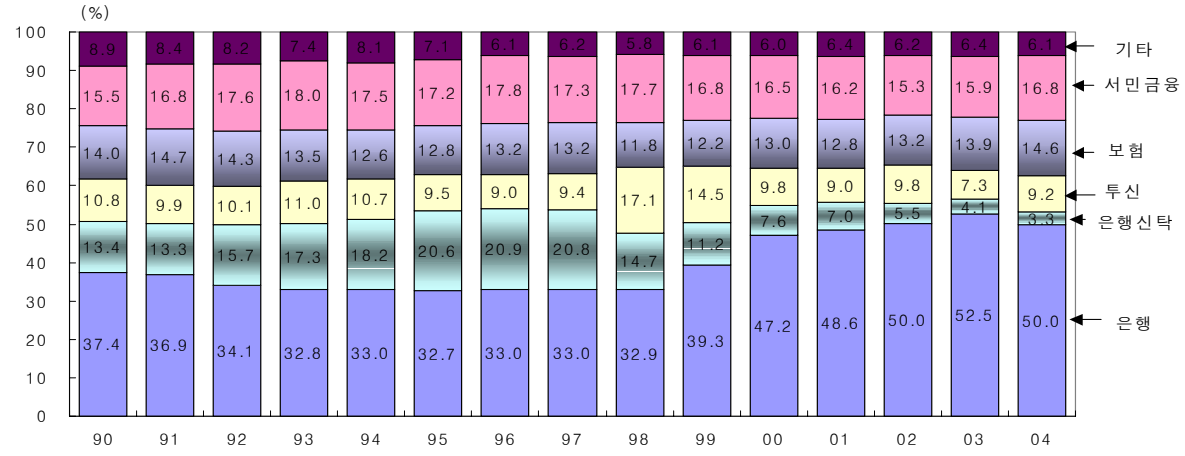
통화총량 추이

(전년동기대비 월평잔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권별 수신비중 추이(M3말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서민금융 : 상호저축은행, 신협기구, 기타 : 종금, 우체국예금 등

10. 국제수지

1 10월 경상수지는 전월보다 13.4억달러 늘어난 29.9억달러 흑자 기록

(억불)

	2004년		2005년					
	10월	1~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1~10월
경상수지	23.0	231.4	59.5	27.6	25.1	16.4	29.9	142.2
상품수지	27.5	311.5	92.9	86.5	75.4	28.1	34.4	289.3
서비스수지	△5.4	△60.7	△30.5	△30.8	△44.6	△11.1	△6.0	△111.9
소득수지	1.2	△0.9	2.4	△21.0	0.4	1.4	3.0	△15.2
경상이전수지	△0.3	△18.5	△5.3	△5.0	△4.6	△2.1	△1.5	△20.0

- 상품수지는 수출 호조세로 흑자폭이 전월보다 6.2억달러 증가한 34.4억달러 흑자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10월들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적자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금년 10월까지 적자규모가 111.9억불로서 이미 04년의 전체 적자규모(69.0억불)를 상회하고 있음

  - 여행수지(여행+유학)는 10월까지 지급액이 26.8%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오히려 △6.6% 감소하여 적자규모가 59.1% 증가한 78.8억불에 달해 04년 전체 적자규모(△49.6억불)를 상회

  - 사업서비스수지는 10월까지 지급액이 19.1% 증가한 126.6억불을 나타냈으나, 수입액은 11.9% 증가에 그쳐 적자가 31.4%(51.7억불) 증가

(05.1~10월 누계, 억불)

	일반 여행	유학·연수	여행(총괄)
수 입	44.6 (△6.5)	0.08 (△46.6)	44.7 (△6.6)
지 급	95.9 (23.7)	27.6 (39.0)	123.5 (26.8)
수 지	△51.3 (71.9)	△27.5 (39.7)	△78.8 (59.1)

<註> ( )안은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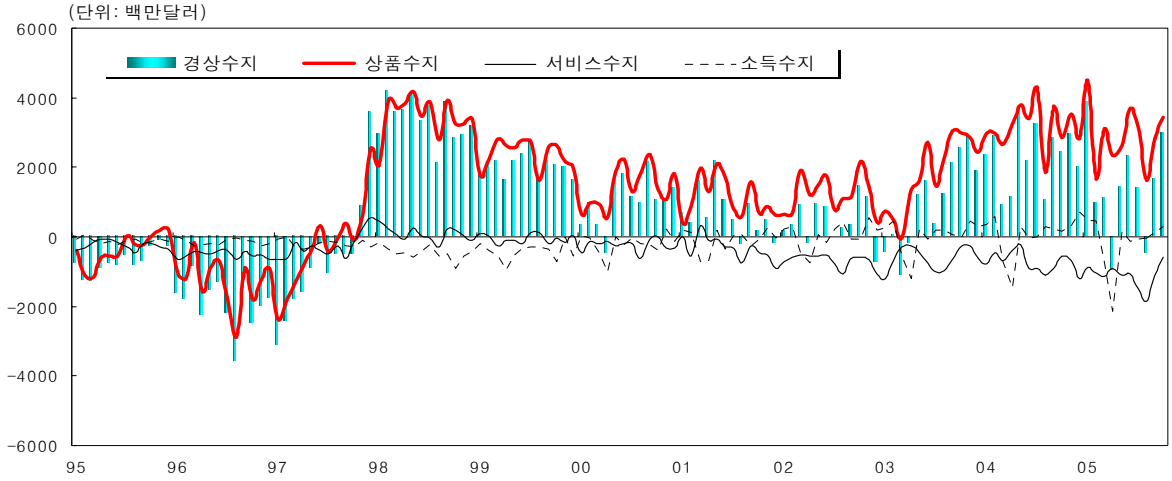
- 소득수지는 대외이자 지급이 감소하여 흑자폭이 전월보다 1.6억달러 확대된 3.0억달러 흑자를 나타냄

2 10월 자본수지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에 따라 22.8억달러 유출초과 시현

* 외국인 국내직접투자(억달러) : (05.7)△2.2→(8)6.2→(9)3.2→(10)3.0,
내국인 국외직접투자(억달러) : (05.7)△2.8→(8)△2.9→(9)△5.4→(10)△4.4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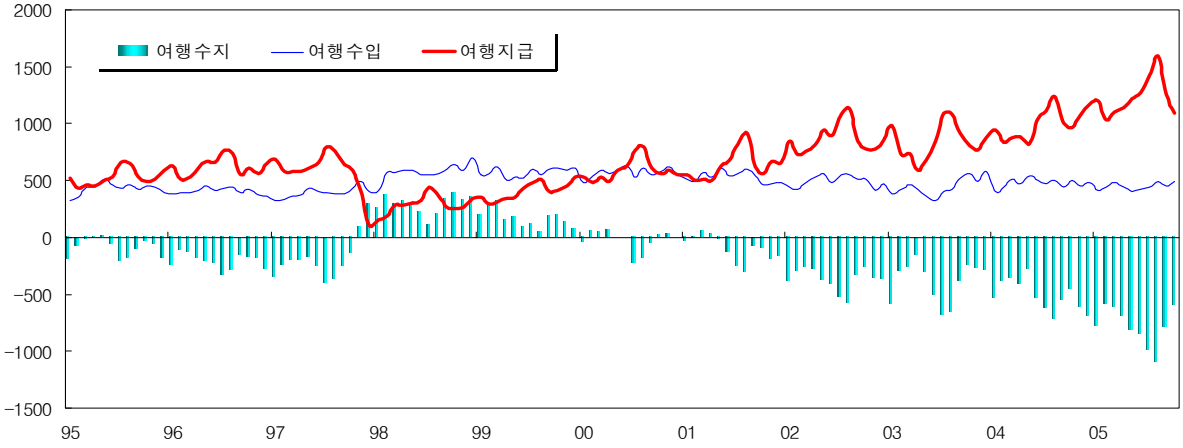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국제수지동향)

여행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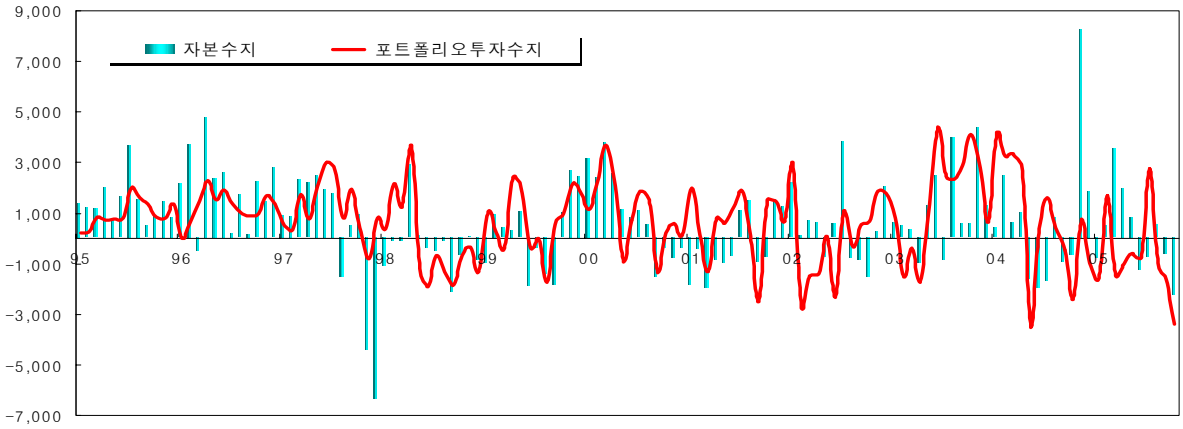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국제수지동향)

자본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국제수지동향)

11. 물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1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중반을 나타냈으며, 전년동기비 2.8% 상승하여 연초 전망치인 3%대 초반보다 낮은 안정세를 보임

	'04.11월	'05.7월	8월	9월	10월	11월
· 전월비	△0.6	0.4	0.3	0.7	△0.2	△0.7
· 전년동월비	3.3	2.5	2.0	2.7	2.5	2.4
· 전년동기비	3.6	3.0	2.9	2.8	2.8	2.8

- 농산물 가격은 수확기 이후 곡물·과실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지속

- 석유류 제품은 여전히 높은 수준(전년동월비 8.4%)이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에 비해 하락(전월비 △2.0%)

주요 부문별 상승률(전년동월비, %)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석유류	공공요금	집 세	개인서비스
05년 11월	2.4	△0.5	3.9	8.4	2.6	△0.3	3.1
(기여도, %p)		(△0.06)	(1.28)	(0.52)	(0.38)	(△0.06)	(0.83)
00~04년 11월 평균	3.2	5.1	2.1	4.4	3.5	3.8	3.6

□2 근원물가는 낮은 총수요 압력과 곡물가격 안정으로 전년동월대비 1.9% 나타냈으며,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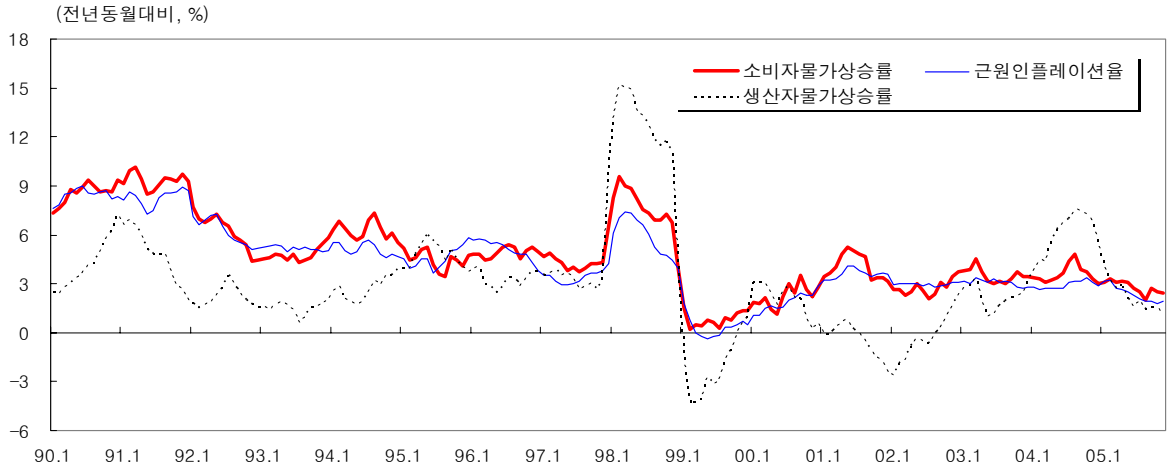
(전년동월(기)비, %)

	'04.11	'05.7	8	9	10	11	1~11
근원인플레이션	3.1	2.1	1.9	1.9	1.8	1.9	2.4
생활물가	5.0	3.9	2.8	3.8	3.4	3.3	4.1

□3 05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대 후반을 나타내며, '02년 이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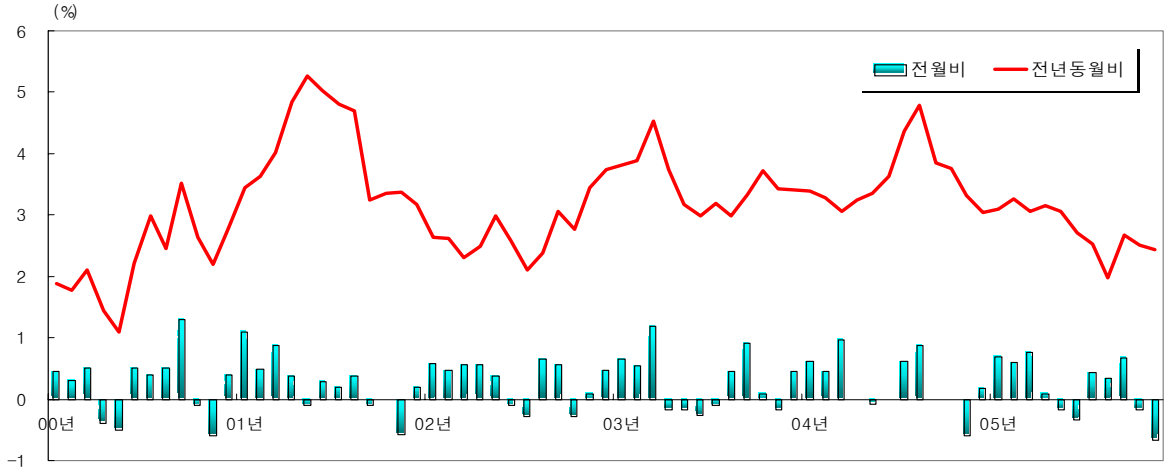
- 12월 소비자물가는 일부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 택시료 인상 등 일부 상승요인이 존재하나, 전년동월비 2%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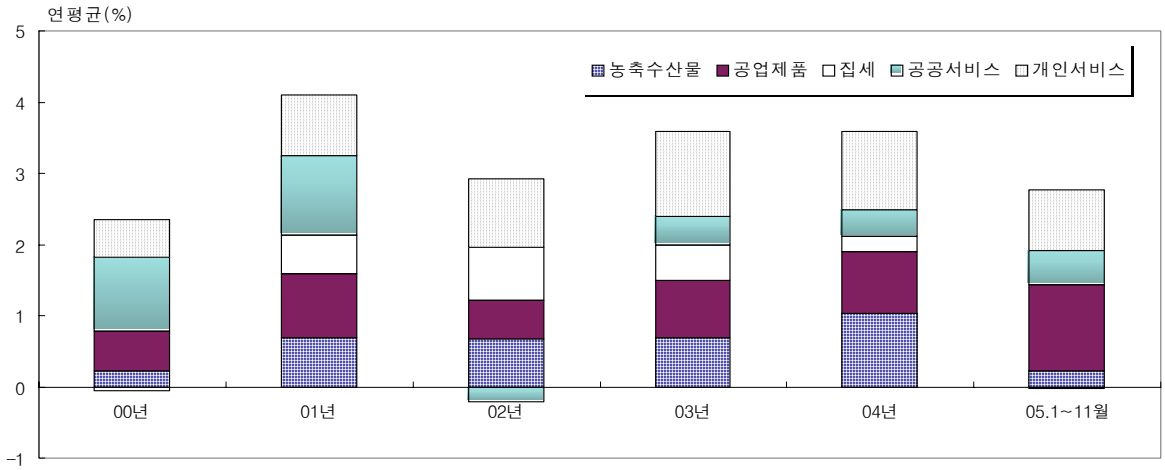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율), 한국은행(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기여도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

4 11월 국제유가는 미국의 동절기 온화한 기상여건, 멕시코만 생산 차질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냄

▪ 다만, 12월 이후 본격적인 동절기 진입 이후 미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급락할 경우 유가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

(단위 : $/B)

구 분	03 평균	04 평균	04.12월	9월	10월	11월	'05.1-11월
· Dubai	26.8	33.6	34.2	56.8	54.0	51.5	49.0
· Brent	28.7	38.2	40.0	62.8	58.5	53.1	54.1
· WTI	31.1	41.4	43.2	65.6	62.3	58.3	56.2

* '05년 최고치($/B) : (Dubai) 9.1일 59.5 (Brent) 8.12일 67.8 (WTI) 8.30일 69.8

▪ 향후 국제유가는 공급여건이 타이트하여 당분간 고유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 증가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가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전문기관들의 05년 두바이 유가($/bbl) 전망 (05.11)

	英세계에너지硏	美에너지정보청	美캠브리지에너지硏
· 05년 평균	49.5	50.3	49.7
· 06년 평균	48.0	57.4	49.4

<註> 유종간 평균가격차(WTI-Dubai : 7$/B, Brent-Dubai : 5$/B)를 적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 휘발유 등 국내제품가격도 국제유가 안정으로 10월에 비해 하락

(단위 : 원/ℓ, 기간평균)

	03년	04년	04.12월	9월	10월	11월	'05.1-11월
· 휘발유 가격	1,295	1,365	1,346	1.525	1,518	1,479	1,430

* 자료 : 석유공사

5 기타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로이터지수는 전월대비 0.5%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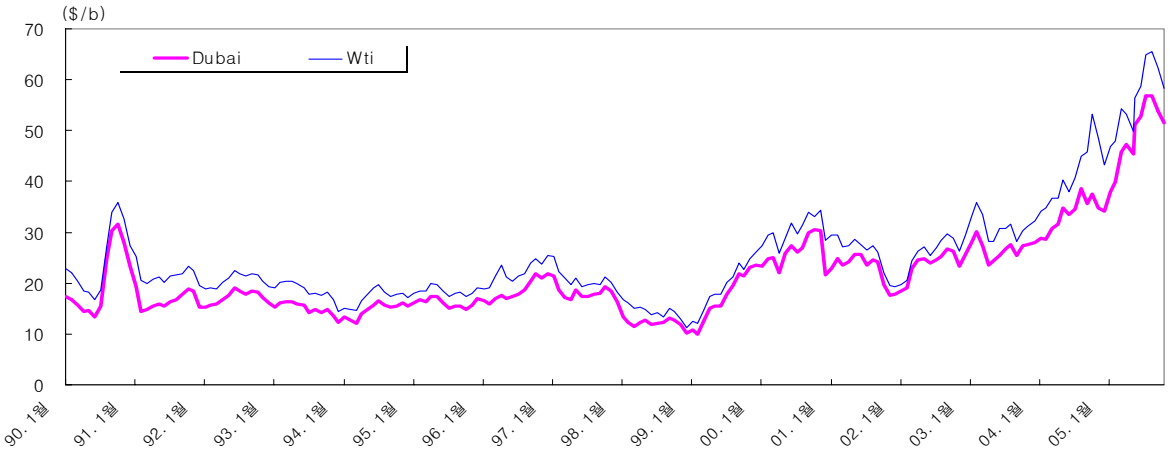
로이터 지수 (17개 주요 원자재 가중평균 지수)

03 평균	04 평균	'05.9월	10월	11월	05.1-11월
1,493	1,618	1,676	1,730	1,738	1,672

▪ 전기동, 아연 등 비철금속은 수요강세에 힘입어 높은 가격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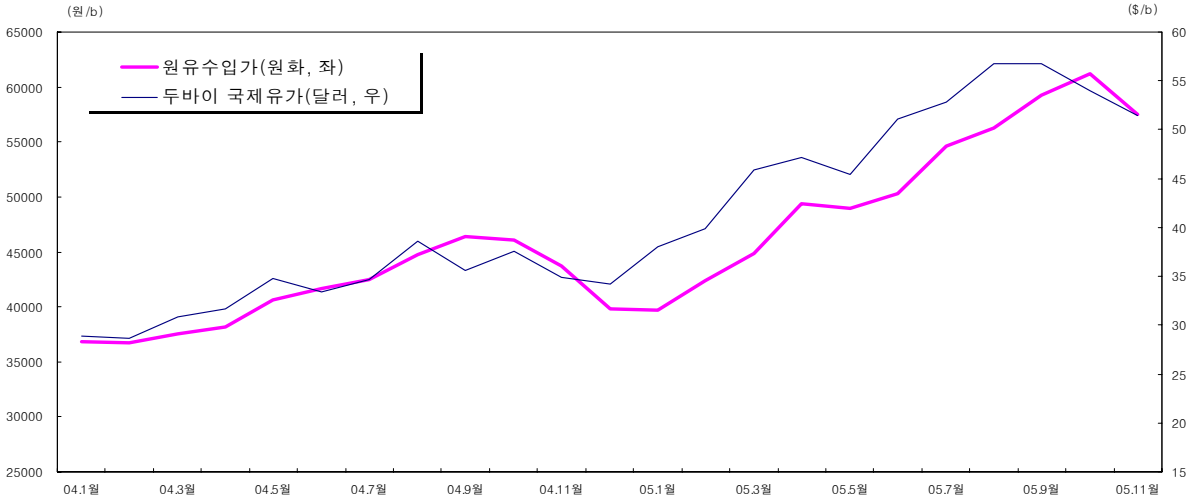
▪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은 남미 작황 호조와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료용수요 위축 등에 따라 전반적인 하향세 시현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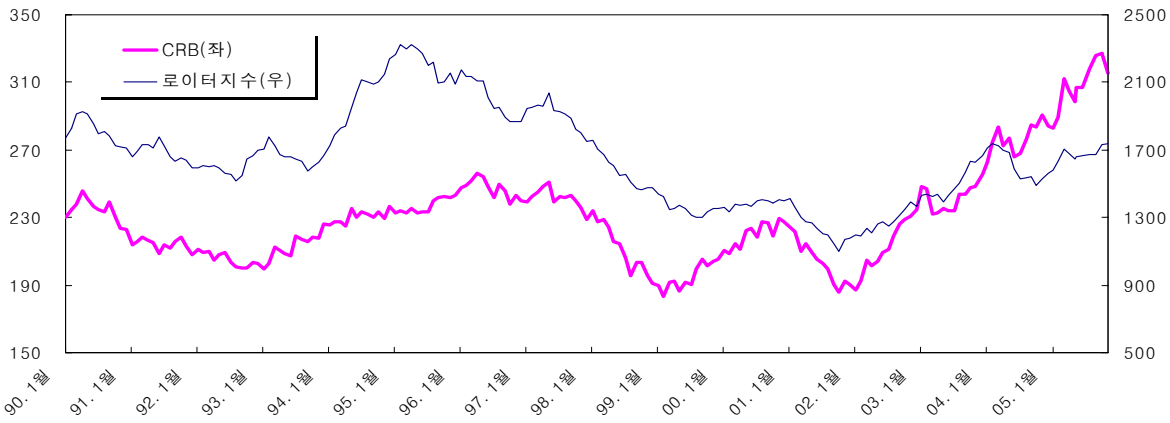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석유공사

국제유가(Dubai) 및 국내수입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관세청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 CRB(Bloomberg), 로이터지수(한국은행)
* CRB : 미국의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콩 등의 곡물, 원유, 귀금속 등 21개 품목의 상품선물시세를 지수화한 것

12. 부동산 시장

1 주택 시장

▪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며 안정된 모습이나, 서울 강남지역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국민은행, 전기비 %)

	03년	04년	05.1	2	3	4	5	6	7	8	9	10	11	주간동향			
														11.7	11.14	11.21	11.28
전국	9.6	△0.6	△0.3	0.5	0.6	0.8	0.8	1.2	1.1	0.5	0.2	0.0	0.0	0.0	0.0	0.0	0.1
서울	10.2	△1.0	△0.3	1.0	0.5	1.2	1.0	2.2	1.9	0.4	0.2	△0.2	0.2	0.0	0.1	0.1	0.2
강남	14.3	△1.3	△0.3	1.7	0.7	1.9	1.5	3.7	2.6	0.2	0.0	△0.4	0.3	0.0	0.1	0.2	0.2

▪ 11월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10월에 비하여 안정적인 모습 (최근 20년간 11월 아파트 전세 평균상승률 △0.4%)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국민은행, 전기비 %)

	03년	04년	05.1	2	3	4	5	6	7	8	9	10	11	주간동향			
														11.7	11.14	11.21	11.28
전국	△0.4	△2.7	△0.4	0.4	0.7	0.6	0.4	0.4	0.3	0.4	1.1	1.0	0.2	0.0	0.0	0.0	0.1
서울	△3.2	△4.4	△0.6	0.2	0.3	0.4	0.1	0.4	0.3	0.7	1.7	1.5	0.3	0.1	0.0	0.1	0.2
강남	△2.3	△5.2	△0.7	0.4	0.2	0.6	0.3	0.8	0.6	0.7	2.2	1.8	0.5	0.0	0.0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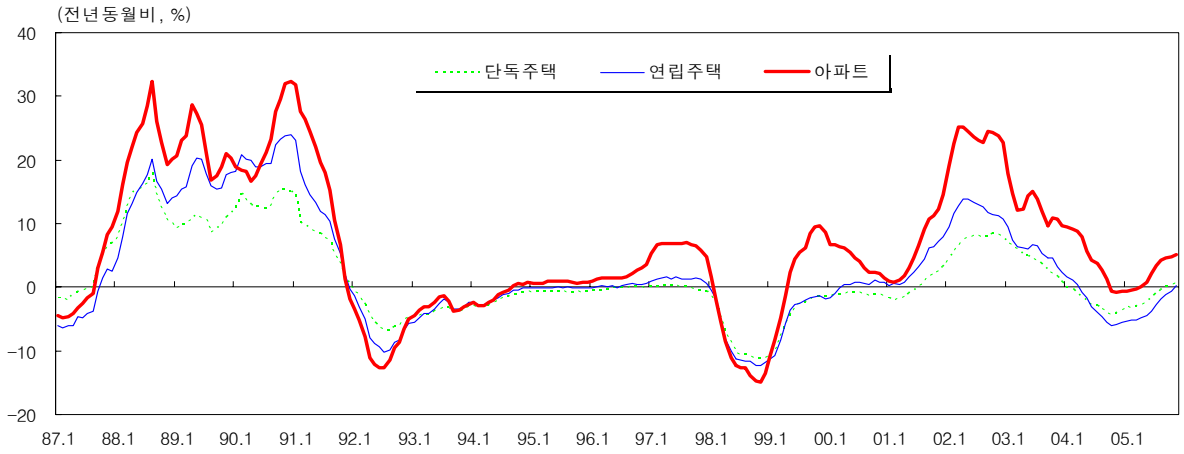
※ 03년 10.29대책 이전인 2003년 9월과 비교할 때 아파트 매매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이나, 전세가격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 아파트 거래는 6.17일 부동산정책 재검토 발표이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

아파트 거래 월평균 건수 (천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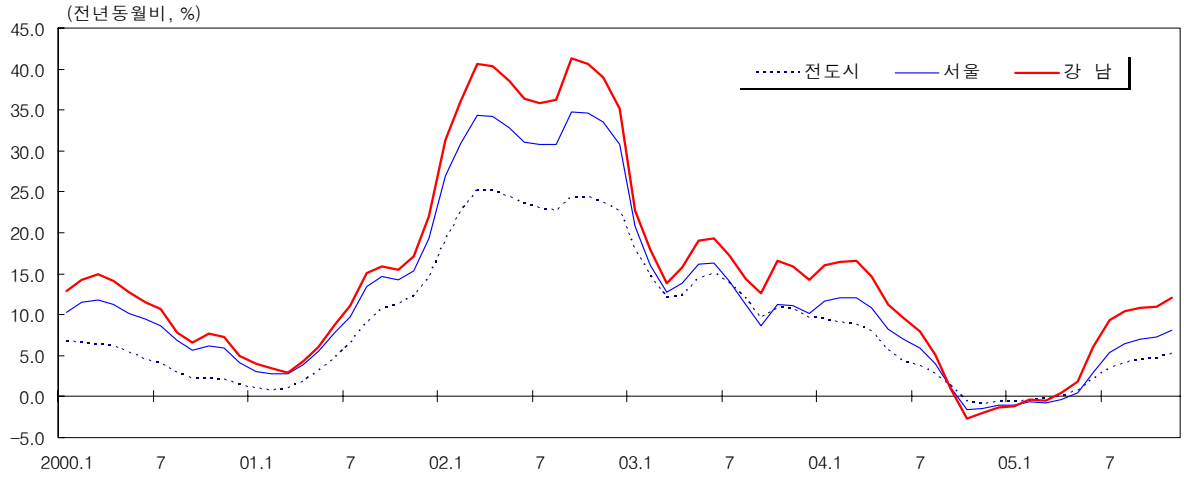
03년	04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91	64	68	63	90	94	86	85	77	77	66	67

유형별 부동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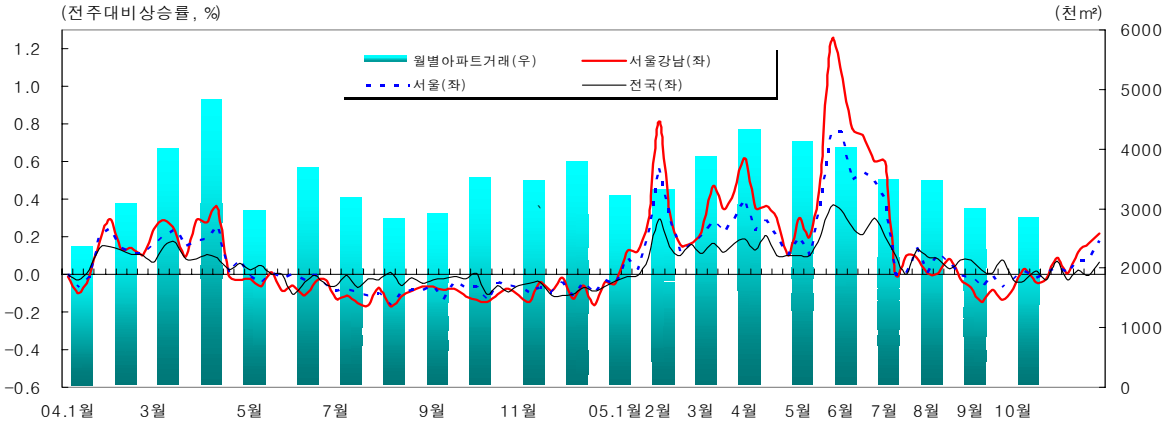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전국주택가격동향)

지역별 아파트가격 추이



자료 : 국민은행(전국주택가격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주간) 및 거래량(월별) 추이



자료 : 국민은행(주간아파트가격동향),토지공사(월별 토지거래현황)

2 토지 시장

▪ 10월 전국 지가상승률은 0.29%로 9월(0.19% 상승)에 이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임

지역별 토지가격 추이(전월대비, %)

	03년	04년					0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국	3.43	1.36	1.09	0.77	0.58	3.86	0.23	0.18	0.35	0.53	0.56	0.79	0.47	0.45	0.19	0.29
서 울	5.23	2.10	0.95	0.59	0.39	4.09	0.19	0.14	0.40	0.73	0.59	1.31	0.49	0.69	0.23	0.52
경 기	5.12	1.96	1.74	1.16	1.13	6.12	0.37	0.26	0.32	0.59	0.88	0.90	0.72	0.47	0.20	0.20
충 남	4.81	2.40	4.65	3.93	0.25	11.65	0.46	0.53	1.15	0.80	0.88	0.81	0.61	0.44	0.21	0.34

- 행복도시 예정지역 보상가시화,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청계천 복원 등으로 연기군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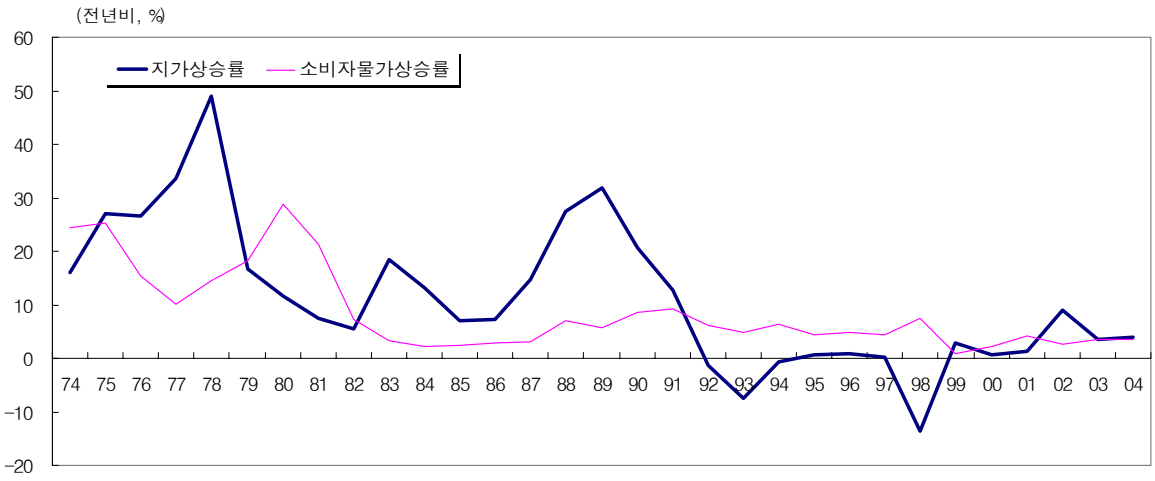
* 상위 5위 상승 : 충남 연기군 3.29%, 전북 무주군 1.05%, 서울 성동구 0.93%, 서울 동작구 0.90%, 제주 서귀포시 0.85%

▪ 토지 거래는 8.31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안정적인 상태

전국 토지거래 월평균 건수(천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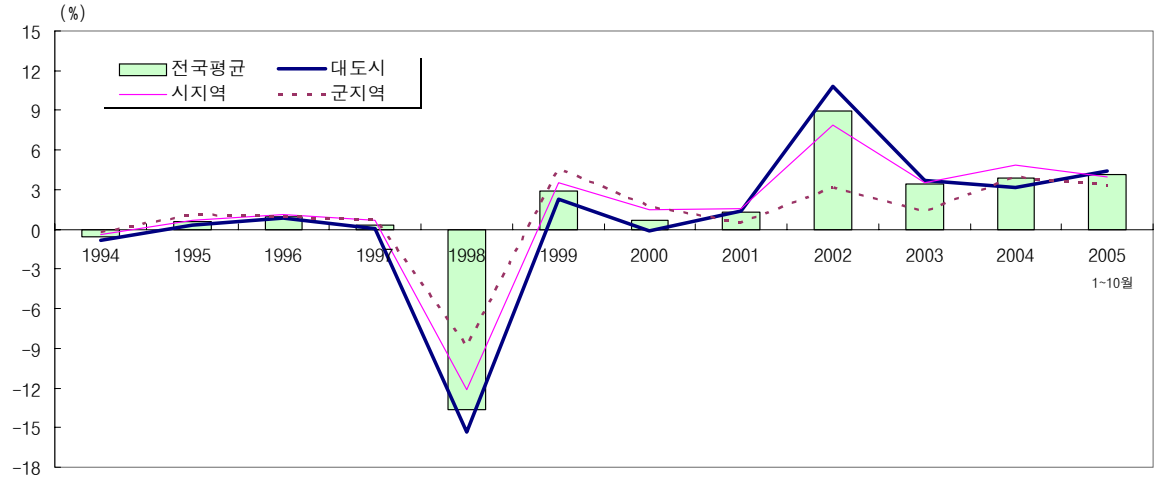
	03년	04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246	218	228	180	279	285	297	287	253	246	210	206
경기	63	52	46	41	58	60	66	63	60	55	50	46
충북	7	8	8	6	10	13	12	12	12	11	9	9
충남	17	20	12	11	19	20	22	31	17	15	11	11

70년대 이후 지가 및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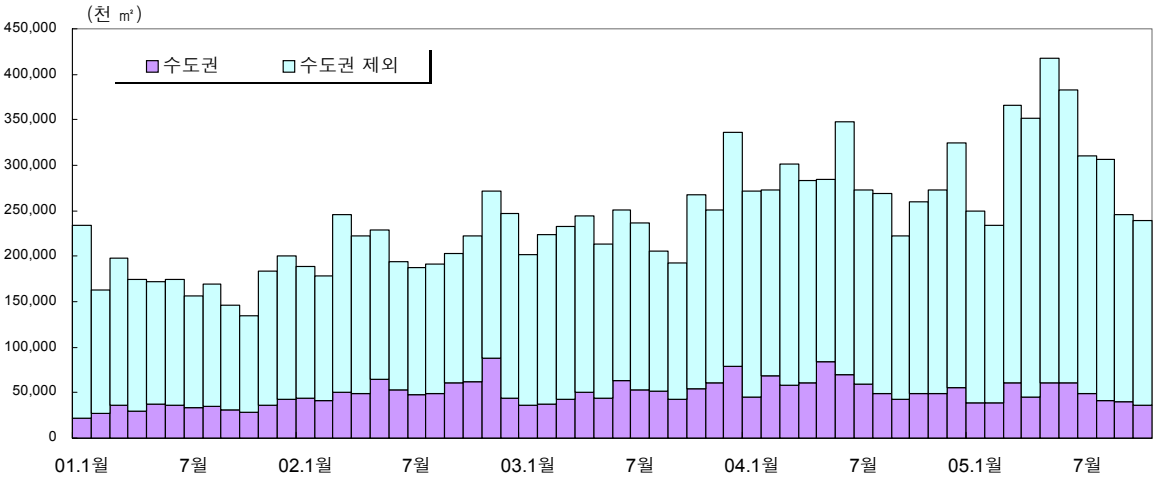
자료 : 토지공사(지가), 통계청(소비자물가)

지역별 지가변동 추이



자료 : 토지공사(지가동향)

토지거래량 추이



자료 : 토지공사(토지거래현황)